
문화가 있는 일상, 머물고 싶은 지역

—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

2026. 9.



문화체육관광부

||| 목 차 |||

I. 추진 배경	1
II.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	5
III. 추진 방향	7
IV. 비전과 목표	8
V. 추진과제	9
1.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9
2. 협력형 거버넌스 및 문화자치 기반 확립	16
3. 생활권-초광역 연결하는 문화균형성장	21
4. 문화로 풍요로운 지역의 미래 창조	25
VI. 시·도별 추진과제	30
VII. 과제별 추진체계 및 일정	63

I. 추진 배경

1 계획의 배경

□ 수립 배경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 성장,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 문화 육성,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기반,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기조와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향후 5년간(2026-2030)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목표와 비전, 정책과제 도출

-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중략)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 <대통령 신년사('26. 1. 1.)>

□ 수립 절차

- (지자체 과제 반영) 지역별 정책 수요 및 중점과제 제출(17개 시도→문체부), 이를 반영하여 중앙-지방정부를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 (분과위원회 운영) 지역문화 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문화기획자 등 30명으로 구성, 기본계획의 방향 제시·신규 과제 발굴 등 정책 논의('25.7~11월)
 - * ▲ 환경 분석 및 정책 수요 파악, ▲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안) 도출, ▲ 지역 토론회에 패널 참석, ▲ 각계 의견수렴·보완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등
- (지역 토론회 개최) 총 4회 권역별 토론회 개최*를 통해 지역 문화기획자, 유관기관, 지자체, 시민 등 의견을 청취, 실효적 정책 수립에 반영 (총 316명 참석)
 - * 호남·제주권('25.11.19.) / 충청권('25.11.20.) / 영남권('25.11.21.) / 수도권('25.11.27)
- (지자체·문화기관 간담회) 17개 시·도 간담회('26.6.16), 기초지자체 및 기초문화재단 간담회* 통해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정책 과제로 전환(총 9회, 54개 기관 참여)
 - * 충북, 충남('26.6.19.) / 강원, 전국('26.6.26.) / 전북, 전남광주('26.7.2.) / 대경, 동남권('26.7.10.)

〈 수립 경과 〉

- ('25.6~7월) 정책 자료 및 통계 검토 등을 통한 정책환경 분석
- ('25.7~11월) 전문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정책과제 도출
 - * 지역문화 분야 정책 및 현장 전문가 등 총 30명, 균형발전·생활문화/인력·자원/문화도시·로컬비즈니스/제도 등 4개 분과에서 총 18회 회의 진행
- ('25.10~12월) 지역문화정책 실태·인식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문화재단 담당자, 민간 전문가·활동가 대상(총 158명 응답)
- ('25.11월)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지역 현장 의견 청취(총 316명 참석)
- ('26.3월)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완료
- ('26.6~7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문화재단 통한 지역 현장 의견 청취
- ('26.7~8월)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사전 논의(5회)
- ('26.8~9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회람
- ('26.9월)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중점 추진과제 제출
- ('26.9월)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심의
- ('26.9월)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발표

2 정책여건 분석

□ [정치·행정]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발전 전략 추진

- 국민주권정부 출범(‘25.6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5극 3특 중심의 초광역권 균형발전 전략’ 추진
- 핵심 첨단 산업(반도체, 퍼지컬 AI, AI데이터센터)을 전국으로 분산·확장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26.6월)

⇒ 5극 3특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 필요

□ [문화] 수도권 중심 문화 일극화 심화

- (인프라)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및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전국 문화기반시설 분포 현황(단위 : 개)>

구분	총계	비율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기타	1개 시·도당 평균 시설 수
계	3,337	100%	1,300	918	290	281	232	316	196.3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1,231	36.9%	593	300	109	91	66	72	410
기타 시도(14개)	2,106	63.1%	707	618	181	190	166	244	150

자료 : ‘25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25.1.1. 기준)

- (향유) 유명 공연·전시의 수도권 편중으로 고품격 문화콘텐츠 접근이 어려운 지방 청년들의 ‘문화 원정’ 일상화*, 지역 정주민족도 격차

* <시사저널 25.11월> “수도권 공연 보러 1박 2일 원정갈”, ‘문화의 빈곤’이 청년들을 떠나게 한다

구분	문화시설 분포		문화예술활동 분포	
	전시관(박물관·미술관)	공연장	전시 건수	공연 건수
수도권	409개(33.9%)	726개(44.2%)	8,686건(50.7%)	10,035건(61.3%)
비수도권	799개(66.1%)	915개(55.8%)	8,459건(49.3%)	6,322건(38.7%)

자료 :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5년), 공연예술조사 보고서(‘25년), 문예연감(‘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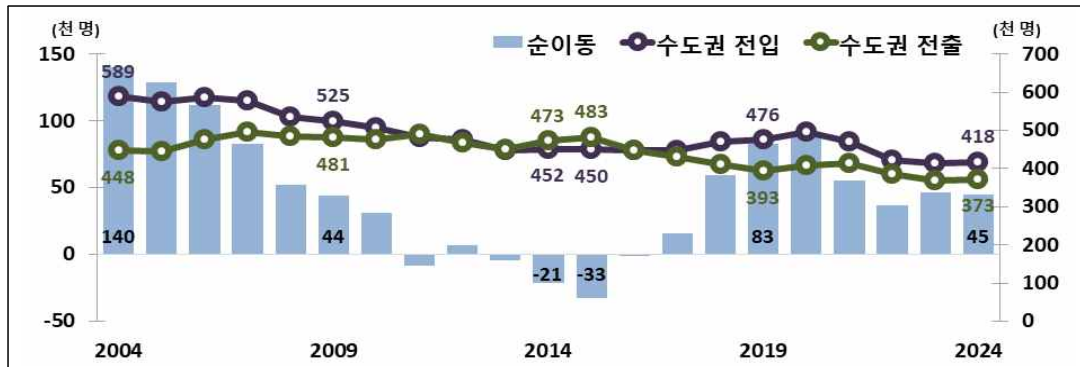
⇒ 지역 거점 문화인프라 확충, 고품격 문화콘텐츠 유통 및 확산을 통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문화 격차 완화 필요

□ [인구 · 사회] 지역 위기 가속화 및 삶의 방식 변화

- 경제·인구 등의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라 지방의 청년 인구 유출** 및 경제위축으로 인한 경쟁력 감소,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 악화

* 기초지자체의 40%인 89개가 법정 인구감소지역이며, 이 중 85개가 비수도권에 위치

** '15년부터 10년간 청년층 수도권으로 67만명 순이동(연평균 6.7만명)



자료: 통계청(2025),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 주 4.5일제 도입 논의,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 및 여가활동 증가 등 일상 속 문화·여가활동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

* '25년 문화예술관람률 60.2% / 평균 주말 여가시간 5.6시간

⇒ 문화 분야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증진 필요

□ [경제 · 산업 · 기술] 지역경제 위축과 AI 대중화 시대의 도래

-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국가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자산·산업 인프라 등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 경제는 위축

* 전국 지역총소득 중 수도권 비율 : '14년 51.8% → '19년 52.0% → '24년 52.8%

- 생성형 AI 등장, AI 성능 향상 및 플랫폼화 등 AI 영역이 분류·예측을 넘어 '소통·창작'으로 확장되면서, AI 기술 사용의 대중화

* 글로벌 AI 시장은 '20년 378억 달러 → '24년 2,576억 달러 → '25년 3,717억 달러로 급성장(산업연구원, '25.8)

⇒ 문화를 통한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 발굴, AI 일상화에 따른 사회변화 등에 대응한 지역 문화정책의 역할 필요

Ⅱ. 지난 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1 성 과

□ 지역문화정책의 법·제도·데이터 기반 확립

- (지역문화정책의 제도화) 법·제도 정비와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
 - * 「지역문화진흥법」 3차례 개정('20년~'22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취약지역 우선지원 근거, 문화도시 지정 취소 청문절차),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21.7월/문체부 고시)
- (정책 근거의 데이터화) 통계·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지자체별 문화 격차를 수치로 확인하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4단계 구축('21년~'24년), 지역문화실태조사 3회 실시('20-'23-'24년 기준)

□ 문화 향유의 저변 확대

- (문화향유의 일상화) 참여시설·프로그램의 지속 확대*로 문화 향유가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상으로의 변화 촉진
 - *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 1.7배 확대('20년 11,904개→'25년 20,314개), 구석구석 문화배달 1,685회, 61만명 참여('24년~'25년), 청춘마이크 3,361팀 참여('25년)
- (문턱 없는 문화서비스) 시설을 찾아오기 어려운 지역과 사람에게 도서관·박물관이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로 향유의 경계를 확장*
 - * 찾아가는 도서관 '책나래' 참여관 1,210개관 확대('26.6월 기준, 연간 이용 4.2만건), 디지털 원격교육 86회 진행, 2,605명 참여('25년 기준)

□ 지역 고유자원의 브랜드화 및 일자리 연계

- (기억의 기록 및 자산화) 사라질 위기의 지역 기억을 기록·축적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역 자산으로 발전*
 - * 지역문화포털 '지역N문화' 내 지역주민 경험중심의 기록형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지역설화, 향토음식, 근대문화유산 등 총 12,728건 서비스)
- (창작-일자리 연계) 지역 문화자원 발굴이 창작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매출·일자리 창출로 연결*
 - * 콘텐츠코리아랩(창·제작 19,275건), 지역거점형콘텐츠기업지원센터(2,731개사 지원, 고용 6,260명, 매출 1조 340억원) 관광두레(주민사업체 586개 발굴)

□ 문화도시 · 공간재생으로 지역 활력

- (지역 주도 도시모델 정착) 지역 스스로 문화 비전을 설계·실행하는 방식이 지역문화정책의 주요 발전 모델로 정착*

* 문화도시 24곳 지정('19년~'22년), 광역형 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지정('24.12월) 및 운영

- (문화적 지역 재생 추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공간을 되살리는 방식의 재생형 모델의 전국 확산*

* 유흥시설 문화재생 96개 사업('20년~'26년), 공공디자인 시범지 21개소 조성

2 한 계

□ 수도권 · 비수도권 간 문화 격차 상존

- (문화향유 격차) 유명 공연·전시 등 문화시설과 콘텐츠의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역 문화 생태계 약화 및 지역의 정주 매력 저하 우려*

* 청년의 지역 이탈 사유 1위는 문화·여가·소비 인프라 부족(49.3%) > 일자리(45.8%) > 교육 기회 부족(33.3%) ('26.4월 서울신문 설문조사)

- (문화공간 조성 전략 미흡) 문화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생활권 접근성·기능 배치·운영역량을 고려한 공간 조성 전략은 미흡

□ 지역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 참여 저조

- (지역 문화의 다양성 부족) 지역마다 유사한 문화콘텐츠 개발·활용에 따른 획일화 현상, AI 시대에 대응한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 미흡

- (주민 주도 문화참여 위축) 국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은 높은 수준('25년 60.2%)이나, 문화예술 동아리 등 생활문화활동은 여전히 저조*

* 문화 관련 동호회 참여 경험률 : '22년 4% → '23년 3.3% → '24년 2.9% → '25년 4.9%

□ 지역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부족

- (지역문화 협력체계 미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운영 실적 저조* 등 지역문화 현장의 의견 수렴,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미흡

* 제4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 실적('22~'24년) : 총 7회 회의(대면회의 1회)

- (국비 지원 축소) 문화·예술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국비 지원 축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 예산 불균형 심화 및 사업 연속성 저하 우려

* '26년 평균 재정자립도(광역 기준) : 특별·광역시 55.9% / 도 34.4%('26. 행정안전부)

Ⅲ. 추진 방향

① 생산·유통·향유·재투자가 연결되는 자생적 문화생태계 구축

- 수도권은 공급(문화시설) → 생산(콘텐츠) → 소비(관객)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문화생태계 형성한 반면,
- 비수도권은 문화시설·콘텐츠 등 공급 기반이 취약해 자체 콘텐츠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지 못하는 단절적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

⇒ 지역에서 문화가 생산, 소비되는 **자생적인 문화생태계 구축 및 정주 여건 향상**

② 중앙-광역-기초정부 협력으로 주민자치형 문화 거버넌스로 전환

- 문화예산 지방이양* 및 지자체 자율성 확대에도 중앙-광역-기초 간 역할 불분명으로 협력 체계 약화

* '20년 약 1,235억, '23년 약 2,655억원 지방이양(문화시설 확충, 지역문화행사지원 등)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60.2%) 대비 저조한 주민 주도형 생활문화활동(49%, '25년)

⇒ **중앙-광역-기초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협력 채널 구축 및 주민 참여 통로 확대**

③ 생활권-초광역을 연결하는 문화균형성장 추진

- 교통·산업·관광 분야는 5극 3특 기반의 초광역권 구조로 재편되며 생활권·경제권 통합이 빠르게 진행
- 반면 문화정책은 시·도, 기초 단위 개별 사업에 머물러 있어, 생활권-광역-초광역을 잇는 문화공간조성 등 균형성장 체계 부족

⇒ **생활권(문화기본권 보장)-광역(광역 내 격차 조정)-초광역(생산·유통·문화기능 연계) 위계 갖춘 '문화균형성장'체계 구축, 수도권 중심의 문화구조 전환**

④ 문화를 통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유사한 콘텐츠·시설 개발 반복으로 지역 고유성 약화, 발굴 자원도 콘텐츠·비즈니스로 이어지지 못함(유사 지역축제 난립 등)
- 생성형 AI 확산 등 기술 급변 속에, 지역문화가 대응 못하면 향유·창작 격차가 새로운 형태로 재현될 우려

⇒ 지역 고유자산을 콘텐츠·비즈니스로 육성 및 시 접목, **지속가능한 문화 성장동력 창출**

IV. 비전과 목표

비전

문화가 있는 일상, 머물고 싶은 지역

가치

참여와 협력

연결과 지속성장

고유성과 다양성

목표

- ◆ 국민 문화예술관람률 제고('25년 60.2% → '30년 70%)
- ◆ 지자체 문화예술부문 재정 비율('25년 1.6% → '30년 2.0%)
- ◆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주 여건 만족도('30년 60%^{신규})

전략

추진 과제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① 다년도 협약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 ② 사람에게 투자하는 지역문화정책으로 자생력 강화
- ③ 지역 예술의 창작·유통 기반 강화
- ④ 지역 문화 인프라 혁신
- ⑤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적 정주여건 개선

**협력형 거버넌스 및
문화자치 기반 확립**

- ①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 강화
- ② 지역문화기관 기능·역량 강화
- ③ 지역문화재정 안정화
- ④ 데이터 기반 지역문화정책 고도화

**생활권-초광역
연결하는
문화균형성장**

- ① 생활권에서 초광역까지 연결하는 문화균형성장 체계로 전환
- ② 초광역 단위의 거점 문화시설 확충
- ③ 지역문화 성장거점 및 연계체계 강화

**문화로 풍요로운
지역의 미래 창조**

- ① 창조적 공동체 돌봄과 문화다양성 기반 생활문화정책 확장
- ② 고유한 지역문화자산의 보존·활용과 지역 주도 콘텐츠 육성
- ③ AI 기반 문화서비스 혁신
- ④ 지속가능한 로컬 문화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V. 추진 과제

전략 1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1-1 다년도 협약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 ◆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주도 계획 수립과 중앙·광역·기초 간 다년도 정책협약을 통한 이행 지원으로 문화기본사회 조성

□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주도 계획 수립

- (문화기본권 보장계획) 거주지역·장애·연령·소득·언어·국적 등과 무관하게 모든 주민의 기본적인 문화권을 보장하는 계획을 기초지자체가 지역 특성·여건 고려하여 수립

< 문화기본권 및 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예) >

문화기본권	계획의 주요 내용
생활권에서 차별없이 문화공간·문화서비스에 접근하고 향유할 권리	지역의 문화권 실태와 생활권별 문화격차 분석 생활권별 문화공간·활동·교육·정보 제공체계 구축계획 문화취약지역·주민의 문화접근 여건 개선계획
생애 전 과정, 문화예술 학습 및 경험할 권리	문화전문·매개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
생활문화·문화활동(창작·연습·발표 등) 참여 권리	공공·민간 문화공간의 기능 조정 및 연계 계획
지역문화정책의 수립·실행·평가에 참여할 권리	계획·예산·편성·사업·실행·평가 관련 주민참여 활성화 계획 중앙·광역·기초정부 역할·재정 분담 계획

□ 중앙-광역-기초 협약 체결 통한 이행 지원

- (협약체결) 문화기본권 보장계획 수립한 기초지자체 대상, 중앙-광역-기초의 다년도 정책협약(‘28~‘30년) 체결 및 예산·컨설팅 지원
 - * 재정분담: 지역별 문화격차와 문화취약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분담 비율과 지원 규모를 차등 설정
 - (역할분담) 문체부는 가이드라인·국비 지원, 광역은 계획컨설팅·재정 매칭, 기초는 보장계획 수립·사업 집행 담당
- (단계별 이행) 협약 사업 추진 연구 등 기반 구축(‘27년) → 시범 추진 및 점검·보완(‘28~‘29년) → 협약사업 이행 완료 및 종합평가, 본격추진 결정(‘30~‘31년)

1-2 사람에게 투자하는 지역문화정책으로 자생력 강화

-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일경험 확대, 성장경로 지원 및 지원 체계 강화로 '사람을 키우는' 지역문화정책 지향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체계 마련

- (개념 구체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제도적 개념과 범주, 유형, 제도적 지원방안 등 구체화·명확화* 위한 연구·법률 개정 추진('27년~)
 - *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전문성 보장 위한 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체계 반영
 - ▲ 지역문화기획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 적정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PD·문화이장 등 현장에서 활동할 전문 역량과 실무경험 갖춘 인재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 과정 신설('28년~)
 - 지역의 대학, 문화기관과 협력, 지역 특성·자원 활용하여 문화향유 프로그램, 로컬 콘텐츠 제작·운영하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과정
 - 복지·의료기관 연계, 문화예술을 통한 돌봄·치유, 문화접근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융합전문인력* 양성 과정
 - * 문화돌봄·치유매개인력, 장애인 문화접근성 매니저 등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일 경험 확대 및 성장경로 지원

- (지역문화기획자* 배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할 ^{가칭} 지역문화PD(시·군·구), 문화이장(읍·면) 선발·배치('28년~)
 - * (역할) ▲ 지역주민·지역기관의 문화수요 파악 및 지역 예술인과 연결 ▲ 주민 주도 문화 프로그램 기획·실행 ▲ 문화돌봄, 문화치유 프로그램 기획·실행 ▲ 주민사업체 창업 및 성장 지원 등
- (지역체류 활성화) '컬처케이션(Culture+Vacation)' 등 타 지역 체류 통한 새로운 작업 활동 도모하고 지역 전문인력·예술인 네트워킹 확장
 - ※ 부산 영도구의 <예술 선단 X 내·일의 항해캠프>
- (대학연계 창업지원) 인문·예술대학 연계한 '문화 통한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
 - * 취약계층 문화향유, 고립청년 사회연결망,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 실적 우수 프로젝트 단계별 지원(예비창업→창업→성장→도약)으로 지속성 제고

- (예술인 경력 확장) 예술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통해 예술인의 경력 확장 지원

□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원체계 강화

- (지원체계 구축) 지역문화진흥원 - 광역·기초문화재단 연계 지원*으로 전문인력의 전국 이동성과 지역의 현장 대응력 확보

* (지역문화진흥원) 전국 단위 통합관리 및 지원플랫폼 운영 (광역기초재단) 현장 거점 역할 수행

- (경력인증·매칭시스템 구축) 예술인, 강사, 문화기획자 등의 경력정보 인증·관리 및 수요기관과 일거리 매칭을 위한 문화전문인력통합DB 구축·운영 검토('28년~)



문화전문인력통합 DB 구조도

1-3 지역 예술의 창작·유통 기반 강화

- ◆ 지역 기반 예술인·단체의 발굴과 육성, 지역 예술의 창·제작 거점 지원, 유통 활성화로 지역예술의 고유성과 다양성 제고

□ 지역예술인 유입 확대

- (예비·신진 예술인 지원) 지역에 새로운 예술인이 꾸준히 유입·정착할 수 있도록 예비·진입예술인* 및 신진·유망예술인**의 지원 강화('27년~)

* (예비) 예술대학(원)생 / (진입) 대학 졸업 후 3~5년(등단·발표 전 준비단계)

** (신진) 경력 5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예술인 / (유망) 경력 5~15년 이내 예술인

- (예술 영재 육성) 수도권에 집중된 예술 영재가 지역에 확대되도록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지역캠퍼스 확대(4곳→8곳)
- (공공문화사업 참여 확대)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연·축제 등 대상 지역예술인 참여제도(참여 기준, 쿼터제 등) 도입 검토,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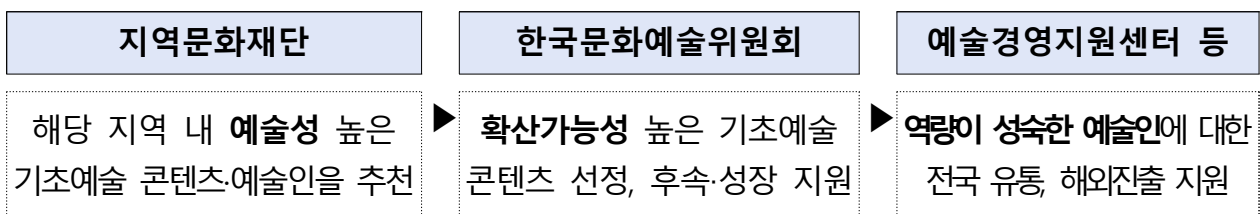
□ 지역예술 창·제작 여건 강화

- (문예회관 지역예술 창·제작 거점화) 지역 문화자원에 특화된 공연 콘텐츠 기획·제작 및 권역별 공동제작 등 지원
 - * (사례) 안산문화재단-민간프로덕션 협업, '전설의 리틀 농구단' 뮤지컬이 지역 문예회관 개발 작품 최초 해외 라이선스 성사('24년)
- (지역예술단체 육성) 지역 예술단체를 공공 공연장·문화기관과 연계하여 공연 창·제작 환경 개선, 단체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지역 간 예술교류 및 레지던시 확대) 지역 간 창작 교류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교류형 레지던시, 권역별 공동창작, 지역 교차 멘토링을 확대하여 예술인의 이동성과 성장 기회 확대

□ 지역문화예술 유통 활성화

- (지역예술 후속지원 확대) 지역문화재단 추천 바탕으로 우수 예술인·예술작품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국 유통 및 해외 진출 지원

< 후속지원 흐름도 예시 >



- (지역 예술장터 활성화) 지역 단위로 예술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장(場)으로 지역 문화·예술장터 활성화 지원 검토

<예시> 지역 문화예술장터

- (지역예술인 판로) 기성작가와 공모로 발굴한 신진작가가 함께 참여, 1만원~300만원대의 접근성 있는 가격으로 작품 판매·유통
- (주민 향유) 관람 무료, 공연·디제잉·가족체험 등 부대행사와 지역 소상공인연계 프로그램으로 주민·관광객의 자연스러운 문화예술 향유 유도
- (지역 확장) 주변지역까지 참여작가 범위를 넓혀 '신진 작가' 발굴·조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1-4 지역 문화 인프라 혁신

- ◆ 유휴공간·산업단지 활용, 콘텐츠·사람 중심의 새로운 문화거점 확충, 문화시설 운영 내실화로 문화·정주 환경 개선 및 생활 인구 확대

□ 유휴공간 · 산업단지를 활용한 문화 거점 조성

- (폐시설 문화재생) 폐산업시설 등 기능을 잃은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지역 주민문화향유 공간 확대 및 경제 활성화

< 유휴공간 문화재생 주요 사례 >



(옛)장흥교도소 활용 문화 예술복합공간 조성('25.7월 개관)



산일제사 활용 전시실 조성 (세종시, '25.7월 개관)



폐교 활용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경남 양산 '25.7월 개관)

- (문화가 있는 산단) 문화선도산단 선정 확대*(산업부·국토부 합동), 산업단지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청년 근로자가 선호하는 산업단지로 탈바꿈

* '25년 3개소 선정(구미, 창원, 완주) → '30년 누적 20개소 선정

< 문화선도산업단지 추진 사례('25년) >



과학X예술 키트 제작(창원)



근로자 문화체험(완주)



산단 페스티벌(구미)

□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

- (운영 내실화) 단순 시설 관리가 아닌 문화콘텐츠 중심 운영을 위해 건립 전 타당성 검토와 시설 유형 정비 병행

- 전문인력(기획·제작·문화매개) 확충 및 지역 대표 콘텐츠 제작·운영 지원
- 운영 타당성 검토*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재정비**(안) 마련 필요

* (검토 항목) 운영계획, 전문인력 확보,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 수요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서관법 등 문화기반 시설 관계 법령

- 복합문화시설 확대, AI 및 디지털화, 이동성 확대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시설'의 정의·유형 정비

1-5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 향유 고도화

- ◆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일상에서 수준높은 문화에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적 정주여건 개선

□ 전국 어디에서나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

- (문화향유 생활리듬화) 문화요일, 우리동네 프로젝트, 지역서점을 통해 일상 곳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경로 다양화('26년~)
 - (문화요일) 문화요일 확대('26.4.1., 월 1회→주 1회) 계기 문화향유를 생활리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
 - (우리동네 프로젝트) 수도권 유명 공연·전시의 지역 순회 지원 및 지역 고유자원 활용한 공연·전시 등의 창작 여건 개선 등
 - * 문화포털(culture.go.kr) 연계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정보 제공 강화
 - (지역서점) 생애주기별 특성 반영한 '인생독서×인생서점' 운영, 서점 폐점시간 활용 '심야책방'(글쓰기·공연연계·체험 등) 운영 확대
- (생활 문화망 조성) 도서관·문화원·문예회관 등을 생활권 문화거점으로 육성하고, 학교·복지관 등 생활시설과 협약을 통해 문화망으로 연계

□ 격차 없는 문화복지와 미래세대 문화예술교육

- (문화복지 강화) 통합문화이용권·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및 분야 확대로 취약계층·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27년~)
 -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 상향
 - * 고령자, 장애인 등 이용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문화예술패스) 청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이용 분야 다변화*
 - * (대상) 19세~20세('26년) → **19세~34세 전체 청년으로 확대**('27년)
 - (범위) 공연, 전시, 영화, 도서('26년)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체육 분야**('27년)

-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동·청소년부터 전문인력까지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 기반 확충(27년~)
 - (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꿈의 예술단'(한국판 엘 시스템아) 전국 확대 및 장르 다양화(오케스트라·무용·극단·스튜디오 → 융합·전통분야 등 추가)
 - (교육전용시설 확충) '한국판 아난달로 아트센터'*인 '꿈꾸는 예술터' 등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공간 확산 추진
 - * 아난달로 아트센터(핀란드): 폐교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공간
 - (교육 허브) 구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가칭)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 조성
 - (교육 협력) 지역 내 교육기관(대학,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과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중앙·지방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생활양식 변화 대응 신규 문화모델

- (야간 문화생활권 확산) 야간 문화생활권 시범운영 성과 분석 후 모델화·확산, 야간문화 활성화 근거를 지역문화진흥법 내 마련
 - 야간예술거리+문화야시장+야간투어 결합으로 문화접근성 확대와 상권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타 부처(중기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와 연계·협력사업 추진
 - * (예시) 중기부 글로컬 상권, 로컬 테마상권 사업 등과 연계협력
- (직주락 통합지원) 직주(職住)는 갖췄으나 락(樂)이 부족한 지방도시 (산업단지 배후도시, 혁신도시 등) 대상 생활권 단위 직주락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 (직주락 공간지수) 지역별 현황 분석지표 개발, 이를 활용하여 유관부처와 함께 4대 요소 정주 패키지(직·주·락·돌봄) 설계·제공
 - (재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에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지구 지정·관리사업' 추가 통해 사업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전략 2

협력형 거버넌스 및 문화자치 기반 확립

2-1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 강화

- ◆ 소통·협력·참여에 기반한 지역문화 거버넌스 강화 및 지역문화진흥계획 성과관리체계 정립으로 실효성 제고

□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역할 재정립

- (기능별 역할 분담) 문체부(방향 기반) - 광역(연계·조정) - 기초(현장·실행)정부의 기능에 기반한 역할 정립 및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27년~)

<문화예술 분야 중앙-광역-기초정부의 역할 분담(안)>

문체부	광역정부	기초정부
기반구축, 지자체 지원	중앙기초 조정연계 광역형 사업	지역밀착형 문화사업
■ 법·제도 기반 마련 ■ 기준 및 정책 방향 제시 ■ 평가 및 컨설팅 ■ 전국 단위 통계·인프라 구축	■ 기초지자체 지원·격차해소 ■ 지역 거점 문화생태계 조성 ■ 광역 인프라 운영·유통 매개 ■ 문화자원 연계 및 교류협력 ■ 공동 전문인력 운영	■ 문화자치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역문화계획 수립 ■ 지역예술인·단체 발굴·지원 ■ 생활권 문화시설 조성·운영 ■ 지역밀착형 생활권 문화사업 추진

- (역할분담 위한 지역 협의) 정부 간 역할 재조정을 위한 공론장 개최로 지역주체*들의 컨센서스 형성 및 결과 확산

* 광역·기초지자체, 지방문화원 및 문화재단 관련 연합회 등

□ 중앙-지역 협력·연계 네트워크 복원 및 강화

- (문화정책 정부협의체) 중앙-광역, 중앙-기초 지자체의 정책적 정책협의체 추진, 주요 문화정책 현황·계획 등 논의('27년~)

※ 중앙-광역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16개 시도 문화국장 참여, 중앙-기초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 주재 권역별(예 5국 3특) 협의체 운영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중앙협력위원회(문체부) 및 시·도협력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기초협력위원회 설치 지원으로 중앙-지역의 연계 강화 기반 마련

※ (중앙) 중앙협력위원회 분기별 개최 정례화 및 주요 지역문화 정책 심의 기능 강화 (광역) 시·도 협력위원회의 기능 실질화 위해 1년 단위로 활동 내역을 중앙협력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반영, 법적근거 마련

- (문화타운홀 미팅) 지역문화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단위 문화타운홀 미팅 개최('28년~)
- ※ 문화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내용은 각급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를 통한 반영결과 발표

□ 지역문화진흥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컨설팅 강화

- (추진실적 점검체계 마련) 문체부와 광역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문체부 및 지역협력위원회(중앙, 시도)에 보고하여 성과점검 및 개선 유도(기초지자체는 권장)('28년~)
- (인센티브) 우수 지자체 대상 포상, 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및 모범사례 공유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지원 독려
- (기본계획-진흥계획 체계로 전환) 4차 기본계획수립 시('30년)부터 광역·기초지자체의 '시·도, 시·군·구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검토
- * 광역·기초지자체의 문화자치 활성화 기반 지역문화정책 포괄
- 광역·기초 지역문화진흥계획에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의 내용도 함께 담도록 전환
- 지역 단위 계획수립 부담 경감 및 중장기 계획의 체계적 관리 유도

□ 중앙-지역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 강화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중앙·광역·기초의 역할과 재정책임, 다년도 정책협약,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지역문화기관과 전문인력 지원 등을 반영한 법률 개정 추진
- (이행지원 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법·제도 개선과 이행 상황을 정부협의체·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

2-2 지역문화기관 기능·역량 강화

◆ 지역문화정책 추진체계 재정비 및 지역문화행정 혁신과 지역문화기관의 전문성·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지역문화 진흥 소관 기관 역량 강화

- (기능 고도화) 사업 집행 지원기관에서 탈피, 지역 주도 문화생태계 구축을 이끄는 지역문화정책·데이터·협력의 컨트롤타워로 기능 전환*
 - * ▲우수한 정책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정 ▲AI 시대 지역문화 데이터 축적 및 활용 지원 ▲거점형 문화연계 위한 다층적 협력구조 마련 등
- (위원회 설립 검토) 지역의 자율적 문화정책 추진과 지역 주도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진흥위원회’ 설립* 검토, 관련 연구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논의 진행
 - *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통한 재정 기반 마련 ▲사회위기·국정과제에 대응하는 정책 거버넌스·지원기관 역할 정립 ▲현장 기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함께 검토

□ 지역 문화기관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혁신

- (맞춤형 교육·표준 운영체계 구축) 대상 유형별(지자체·지역문화재단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표준 운영 매뉴얼 개발·지원
- (정책기능 강화 및 처우 개선) 지역문화기관의 정책 조사·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유치·정착 위한 인건비·고용 여건 개선*
 - * 정책기획 직무와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타 분야 공공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적정 인건비와 근무여건 기준 도출·권고
- (이사회 다양성 확대) 지역문화기관의 의사결정구조 혁신 위해 다양한 배경(세대, 성별, 장애 유무 등)을 가진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다양성 확보 권고 * 예시: 청년이사비율 20% 확보

□ 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

- (평가체계 개선) 지역문화재단의 공공성,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27년~)
- (성과관리 방식 전환) 산출 중심에서 결과·변화 중심 평가로 전환, 지역맞춤형 자율지표·정성평가·컨설팅 중심으로 확대

2-3 지역문화재정 안정화

- ◆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운영 활성화와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지방이양사업 운용개선 통한 재원 연속성 확보로 지역문화재정 안정화 추진

□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유도) 기금 관련 조례 제정 및 설치·운용 지자체 대상 문체부 공모사업 가점 부여를 비롯 새로운 인센티브 발굴·제공
* ('25년 기준) 전국 24개 지자체가 조성·운영 중(총 1,582억원)
- (기금 조성 의무화 검토)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 및 문체부의 국고 출연 등 지원 근거 마련 검토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따른 적립금의 일부를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출연 또는 전입하는 방안 검토

□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 (민간기부 활성화) 문화기관 등(박물관, 미술관, 문화재단,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을 현 일반기부단체에서 공제한도가 높은 '특례기부단체'*로 전환 검토
* 법인 손비처리 한도 :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50% 범위 내 ↔ (일반기부금) 소득금액 10% 내
- (민간투자 활성화) 성과보상형 투자*, 대중 소액모금**, 기부금 연계*** 등 다양한 민간자본 유치 방식으로 지역문화 공공사업 재원 확충
*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민간이 사업비 선투자, 목표 성과 달성 시 정부가 투자금 등 상환
**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특정 문화프로젝트나 단체를 지원
*** (사례) 전남 담양군은 '어르신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지정기부 사업으로 운영

□ 지방이양사업 등 기존 재정 운용 내실화

- (이양사업 운영 내실화) 우선투자 사업이 아닌 문화부문 예산은 축소 가능성 높아, 이양사업 운영 현황·성과 분석 및 운영 기준 개선*(행안부 협업)
* (개선방향) ①우선투자 사업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등 핵심 이양사업 포함
②시도비:시군구비 보조율 위반에 대한 성과평가 패널티 강화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문화사업* 내실화) 기획 단계 전문가 컨설팅 강화, 문체부 기존 사업·문화영향평가와 연계로 완성도·실효성 제고(행안부 협업)
* ('22~'25년) 문화관광 사업 464개(총 사업대비 22.0%)로 산업일자리 484개에 이어 두 번째 규모

2-4 데이터 기반 지역문화정책 고도화

◆ 지역문화 빅데이터 구축, 실태조사 개편, 문화서비스 고도화로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 지역문화 데이터 표준화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데이터 표준화 및 축적) 지역문화기관 데이터의 공통 표준을 마련,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culture.kr)*'에 축적
 - * 문화·체육·숙박 등 데이터를 개방하는 통합 플랫폼(문화정보원 운영), 문화시설 방문·트렌드·상권 분석 등 제공(민간·공공 19개 기관 참여)
- 지역문화기관, 문화분야 민간 기관과 협약 확대를 지원하여 참여 기관 확대 및 양질의 데이터 확충 추진
- (활용모델 보급) 지역문화진흥원 등 매개 기관과 협력, 지자체 및 지역문화기관이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모델 개발·보급

□ 지역문화 실태조사 개편

- (조사체계 정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추이 파악 및 지역(광역시·기초)별 문화지표 시계열 분석·활용 가능하도록 조사체계 개편('26년~)
 - 수시 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 활용도 제고
- (생활권 조사) 읍·면·동 단위 문화 기반 정보* 조사, '문화 기반 지도' 구축
 - * ▲문화공간 ▲문화활동 접근시간 ▲문화예술교육 기회 ▲생활문화·창작활동 여건 ▲문화취약주민의 이용환경 ▲문화정보와 이동 여건 및 주민참여 수준 등
- 이러한 읍·면·동 단위 조사는 광역 및 기초 단위 실태조사와 별도로 우선지역 순차적으로 심층조사·분석 병행

□ 데이터 기반 문화행정·서비스 고도화

- (문화공간정보시스템 구축)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동(mobility) 데이터를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에 탑재,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접근성(시간, 거리 등)'의 실시간 파악 및 정책수립에 활용
- (AI 문화비서 도입) 개인 관심사 기반 공연·전시 추천·큐레이팅, AI 도슨트 도입 등으로 문화 서비스 고도화

전략 3

생활권-초광역을 연결하는 문화균형성장

3-1 생활권에서 초광역까지 연결하는 문화균형성장체계로 전환

- ◆ 5극 3특 문화공간계획 수립과 초광역 협약 체결로 생활권과 초광역권을 잇는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

□ 생활권 연계 5극 3특 문화균형성장 계획 수립

- (문화공간체계 재편) 시·도별 개별 계획에서 벗어나, 권역 내 연계·공동기능 강화(5극) 및 지역 고유성 살려 차별화(3특)된 문화공간계획 수립
 - 수도권 중심의 단극 체제를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극·균형 체제로 전환하고, 생활권부터 광역·초광역까지 이어지는 문화망 연계

<참고 : 권역별 기본계획 방향>

구분	추진방향	지향점
5극 (초광역권)	거점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간 역할분담 강화, 권역 전략산업과 지역문화자원 결합한 대표콘텐츠 육성	생산-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자생적 초광역 문화권
3특 (특별자치권)	자연·역사·생활문화 자산을 주민·지역예술인 주도로 보존·활용, 특별법 특례 활용한 맞춤형 실험적 정책 추진	지리·인구 제약을 보완하는 대체 불가능한 특화 문화권

□ 초광역·특별자치권 협약 체결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

- (초광역특별협약 체결) 초광역권별 문화환경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문화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 초광역권 정책협약을 통해 문화협력사업 발굴·추진('28년~)
 - (초광역 문화협의체) 중앙 - 광역 - 기초지자체와 지역문화기관을 연결해 계획의 수립·이행·평가를 지원하는 권역별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3특 특화협약) 중앙-특별자치권(강원·전북·제주) 정책 협약을 통해 지역의 지리·인구·문화여건을 반영한 문화협력사업 발굴·추진('28년~)

<참고 : 문화기본권 협약과 초광역특별 협약의 비교>

구분	문화기본권 보장정책 협약(1-1과제)	초광역특별협약(3-1과제)
방향	[빈틈 메우기] 거주지·형편과 무관하게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문화권을 촘촘히 채움(상향 평준화)	[판 새로 짜기] 수도권 일극 문화구조를 5극 3특 다극 체제로 전환(공간구조 재편)
협약주체	중앙-광역-기초(3자 체결)	문체부-초광역권(2자 체결)
대상단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로 개별 체결	초광역권(5극 3특) 단위로 체결
정책사업 유형	생활권 기반 문화기본권 보장사업 (문화접근성 개선, 문화활동·교육 기회 확대, 문화취약계층 지원, 전문·매개 인력 배치, 지역 예술인의 창작·유통 기반 지원 등)	초광역 연계·전략사업 (초광역 거점 문화인프라 구축·활용, 지역 간 문화자원 연계, 초광역 콘텐츠 공동기획·제작·유통, 권역 단위 인력·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3-2 초광역 단위의 거점 문화시설 확충

◆ **국립문화시설 지역 이전 및 분관·분원 설치, 국립문화시설의 여건 제고, 지역 대중공연 인프라 고도화로 초광역 거점 문화시설 확충**

□ 국립 문화시설의 초광역 단위 지역 이전 · 신설

- (국립시설 재배치)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반 확대 위해 수도권 국립 시설의 초광역 단위 지역 이전 및 분관·분원 건립 적극 추진

※ 국립문화시설 이전 및 건립 계획(안)

박물관	국립충주박물관 건립('27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29년),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28년/세종), 파주박물관문화클러스터 건립('30년),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31년)
미술관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30년/옛 충남도청), 국립근대미술관 건립('30년/옛 경북도청)
국악원	국립국악원 강원분원('30년), 국립국악원 서산분원('30년)
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29년/강원 평창)

- (타당성 연구) 국립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체계적 이전 등 위한 연구 병행
- (지역연계 강화) 권역 내 문화시설·기관·예술인 등과 공동 기획·연구 등 연계사업을 운영, 지역의 콘텐츠 생산·유통 및 전문인력 교류 거점화

□ 초광역권별 국립 문화시설을 국립 수준으로 향상

- (지역 문화인프라 개선) 지역의 문화 향유 여건 향상 위해 국립 문화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으로 인프라 개선('28년~)

<참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72.>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 문화시설의 확충
(국고보조율 신축 : 50%, 리모델링 60%)

- (거점 문화시설 유형화) 대상 시설 영향력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및 추진

* (초광역 거점) 5극 초광역권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시설
(권역 거점) 3특 등 개별 광역자치단체·소권역을 아우르는 문화시설

□ K-컬처 확산을 위한 권역별 대중문화 인프라 고도화

- (복합문화 돔구장) 대형 콘서트 등 문화콘텐츠를 지역에서도 상시 향유할 수 있도록 전천후 복합문화 돔구장 조성(2개소, '31년 착공 목표)
- (대중문화 공연 수용기반 확충) 지역별 대중문화 공연 수요에 대응하여 체육시설·문예회관 등 기존 시설에 대중문화 공연 개최에 필요한 시설·기능 확충(30개소, ~'28년)

3-3 지역문화 성장거점 조성 및 연계체계 강화

◆ 문화도시로 축적된 성과의 지역 내 지속 및 권역으로 확산, 농어촌·원도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성장거점 육성, '문화지구'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 생활권의 특성에 맞는 문화성장거점 육성

- (농어촌) 인구감소와 문화 격차가 큰 농어촌*을 대상으로 지역의 고유자산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문화예술 특화거점' 조성을 지원
 - * ▲(인구감소) 농어촌 139개 중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84개(약 60%)
 - ▲(문화격차) 읍·면 문화예술관람률 53.4%, 대도시 62.8% 대비 ▲9.2%p('25년)
-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거점 구축, 주민·지역예술대학·청년문화기획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농어촌형 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농어촌을 '문화로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전환
- (원도심) 국토부 도시재생, 중기부 창업·상권활성화 등과 연계, 쇠퇴한 원도심을 청년이 모여 창업, 문화향유, 참여하는 거점으로 전환
 - 유동인구 감소 및 공실률 증가 등 대표적인 원도심 구역을 4극 3특 권역별로 선정하고, 공실상가 정비·환경 개선 및 문화콘텐츠 창업·문화예술인 활동 등 패키지 지원('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27년~)

□ 문화도시 성과 지속 확장 및 거점 문화권으로 연계

- (문화도시 지속·확장)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기지정 문화도시의 성과가 지역에 지속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의 자율적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문화도시 중심의 '권역별 문화거점'으로 확장
 - (신규 지정) 특색 있는 도시브랜드와 지역주민 참여형 도시문화 거버넌스에 기반한 문화장소·콘텐츠·인력 사업 설계·운영 지원
 - (후속 지원) 국비지원 종료 후에도 문화도시 핵심성과 지속 위한 지원
 - 컨설팅·교류·협력을 지원하여 지역의 자립적 운영 기반 뒷받침
 - 축적된 자원·기획역량을 확산할 수 있도록 유관사업 연계 지원*
 - 지역여건과 수요에 따라 인접도시와의 협력사업** 단계적 확대
- * 문체·국토·중기부 협업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27년~)' 가점 부여 등
- ** 문화도시 중심 도시 클러스터 구성해 협약 추진, 다년간 공동문화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권역 대표콘텐츠 공동개발·유통, 지역예술인 교류, 시설 공동활용, 관광 활성화 등 종합 지원

□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지정 요건 완화) 대도시에 한정되는 문제점 개선 및 지역 고유 자원 활용한 다양한 문화지구 형성 위한 지정 요건(인구 50만명 이상) 완화 검토
- (인센티브 재설계) 기존 건물주 중심의 세제 혜택 체계 개편, 예술인·소상공인 직접 지원(임대료, 시설개선, 프로그램),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의무화, 문화분야 상권자치모델(BID)* 도입 등 검토('28년~)
- *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 일정 구역 내 상인과 건물주 등 민간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자신들에게만 부과되는 추가적인 부담금(부동산세 등)을 걷어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
- 중기부 상권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협력 고려하되, 상인 외에 지역 문화 주요 주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참고 : 임대인, 임차인 상생협약 예시>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생협약)
 - (주요 내용)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임대인과 상인간 상생협약 체결 의무화
 - (협약 내용) ▲임대료 안정화 사항 ▲임대차기간 조정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등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안정화하는 내용을 포함

전략 4

문화로 풍요로운 지역의 미래 창조

4-1 창조적 공동체 돌봄과 문화다양성 기반 생활문화정책 확장

- ◆ 생활문화정책 목표범주를 창조적 공동체 돌봄(Creative Community Care)으로 확장, 문화 통한 지역문제해결, 돌봄·치유 확대, 문화다양성 강화 등

□ 문화를 통한 개인과 사회의 돌봄·치유 확대

- (문화돌봄·치유 확대)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활용하여 돌봄·치유 수요 발굴 및 전문인력 매칭, 프로그램 기획·실행
 - * 복지부 통합돌봄체계, 지역 내 사회서비스원 등과 연계

<문화돌봄 사업 모범사례 : 부산 영도 '똑똑똑 예술가' 프로그램>

- 예술가와 주민이 1:1로 매칭되어 미술, 음악, 공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23년 연결사회 지역거점 우수 수행 단체로 문체부 장관상 수상)

- (돌봄·치유 전달채널 다각화) 돌봄이 필요한 곳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거점공간과 찾아가는 서비스 두 방식으로 전달채널을 확장
 - (마을 거점) '어른을 위한 문화카페'(고령자 돌봄·고독사 예방), '청년 문화카페'(청년 아지트)로 세대별 거점 운영
 - (찾아가는 서비스) 농산어촌·도서산간지역 대상 부처협업으로 문화향유·돌봄 프로그램 제공, 상설 실무협의체·통합 플랫폼 구축(예: 농촌왕진버스,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 문화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확대

- (문화처방 프로젝트) 문화자치 기반으로 주민·지역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문화처방 협업네트워크를 구축, 인구소멸·생태위기·주민갈등 등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문화적 해결방안을 공동 기획·실행
- (문화거점 리빙랩 확산) 공공도서관 등 지역 문화거점 활용,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문화적 해결방안을 실험·실행하는 리빙랩 운영
- (인문문화 확산) 생활문화시설 활용, 사회문제(사회적 고립, 세대갈등 등)를 인문적 가치와 실천으로 해결하는 인문프로그램 확대

□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문화유산·예술과 시민의 삶을 이어 다양한 배경의 시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다양성 포용도시 조성
* '26년 4개 도시 지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경기도 안산시)
- (문화다양성 센터) 이주배경 밀집지역 문화시설 거점화, 이주민 문화표현 지원 및 세대·계층·원주민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 (문화다양성 사업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갈등과 편견을 완화하고 상호존중의 지역문화 조성
* 이주배경주민장애인 등의 문화표현정책 참여 확대, 실태조사·다언어정보·교육 등 기반사업 지원

□ 지자체 협력 통한 생활권 문화공간 확보 및 활동여건 제고

- (생활문화공간 확보·운영) 생활문화센터 조성·운영 활성화, 유희공간 (학교, 공실 상가, 유치원, 경로당 등)을 연계한 생활문화 라운지 조성 촉진
- (마을자원 연계) 서점, 카페, 식당 등 일상에서 이용하는 생활권 다중이용시설기반 생활문화활동 지원(사례: 춘천 도시가 살롱)
- (도시자산 공유 플랫폼) 유희 도시자산을 창업·생활문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 개발 및 활용 촉진

4-2 고유한 지역문화자산의 보존·활용과 지역 주도 콘텐츠 육성

- ◆ 지역의 기억과 서사를 주민과 함께 기록·보존해 지역 주도 콘텐츠로 육성,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새로운 관객과 시장 창출

□ 지역의 고유한 기억 및 서사의 보존·활용

- (지역어 보존) 지역의 기억과 서사를 담고 있는 언어문화 집합체로서 민족어, 고어 등 포함한 지역어(사투리)의 보존·육성
- (소멸위험 마을문화 자산화) 소멸위험 마을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구술채록·기록화 및 공연·전시·축제 등 문화콘텐츠로 개발·활용
* 생활의례, 구술, 마을축제, 옛길 등

- (지방문화원 거점화)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생활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는 지역학 거점기관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제작
- (접경지역 평화문화 자산화) 접경지역·DMZ만의 공간 경험을 평화문화예술사업으로 자산화 지원 검토

□ 지역 고유 문화가치의 콘텐츠화 및 브랜딩 지원

- (문화영역 확대) 정책 대상을 순수 문화예술에서 생활 융합형 문화*로 확대, 지역 자산 기반의 로컬 비즈니스 활성화 및 자생력 확보 지원
 - * 공예(수제가구도자기), 로컬푸드, 골목경관(빈집갤러리동네책방), 생활관광(골목투어한달살기) 등
- (로컬 브랜드화)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자산을 문화 기획, 지역 스토리텔링 예술 창작 등을 통해 독창적인 로컬 브랜드로 육성
 - (콘텐츠·창업 연계) 로컬 비즈니스 교육과 연계해 외지 청년의 창업·정착 유도, 구도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자산보호 및 판로확보 지원) 로컬 플레이어의 IP 보호를 위한 공공·민간 협약제도 도입, 공공조달 시장 연계 등 판로 지원 확대

□ 로컬에서 글로벌로, 지역문화 무대의 확장

- (로컬100 플러스) 로컬 100 중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선정하여 홍보·마케팅 지원
- (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 시 해외문화원·재외공관 등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 해외문화원 등 활용 B2B, B2C 비즈니스 행사 개최, '지역 대표공연 월드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진출 지원
- (지역 국제문화교류) 콘텐츠 발굴·기획,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지역 자생적 국제문화교류 체계 구축 지원

4-3 AI 기반 문화서비스 혁신

- ◆ AI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문화 향유' 공간에서 '삶의 질 혁신'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으로 전면 전환

□ 문화시설 지능형 플랫폼 기능 강화

- (박물관) AI 아카이브 및 AI 활용 맞춤형 관람 지원 등 신기술 융합을 통한 박물관 자원 활용 극대화 및 다양한 관람객 수요 대응

AI 아카이브	국립박물관 메타데이터 AI 분석 및 활용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공개 사이트(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유리건판) 개편 공개, 아카이브센터 공간 조성 등('27년~)
맞춤형 관람지원	AI를 활용한 관람객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관람 지원

- (미술관) AI 기술 기반의 전시 콘텐츠 확대, 관객과 상호작용을 통한 전시 관람 안내, 프로그램 운영 등 관람객 경험 확대
- (도서관) 시민 대상 AI 활용법·프롬프트 작성 등을 가르치는 AI 교육 허브 기능 강화, 실습 가능한 체험공간 및 표준 교육프로그램 상시 보급

□ 지역문화자원 AI 기반 데이터 구축

- (국가지식문화 AI 허브 구축)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를 민간·연구자에 AI 학습데이터로 개방·공유, 신뢰성 있는 지역문화자료 활용도 제고
- (지역문화 원천콘텐츠 발굴 및 디지털화) 구술자료, 보유 문헌, 사진, 영상 등 아날로그 자원*을 디지털화하고 문화콘텐츠로 개발
 - * 지역생활사(마을신앙, 지명유래, 지역놀이 등), 지역 설화, 지역 인물 등
- (지역문화 AI 데이터·윤리 기반 구축) 디지털화된 자원을 유형별 라벨링 통해 고품질·대규모 AI 학습 데이터셋으로 가공, 출처·권리 보호와 편향 방지, 사람의 최종 책임을 포함한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4-4 지속가능한 로컬 문화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 ◆ 로컬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자생적 비즈니스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연결, 창출된 가치가 지역에 환원되는 지속 가능한 로컬 문화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 로컬 문화비즈니스 창업·성장 지원

- (창업가 발굴·육성) 로컬 크리에이터와 주민기반 사업체를 발굴하고, 지역문화기획자 등을 활용한 자립화 지원
 - 빈집·유휴공간 활용, 돌봄, 지역기록, 마을관리, 환경과 문화교육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조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

<참고 : 관광두레 사업>

- 주민이 고유 특색을 지닌 숙박식음여행체험기념품의 생산·판매 관광사업체 창업·경영 밀착 지원
- 2013년에 시작해, 2026년 기준 41개 지역 200여개 주민사업체 지원 중
- 관광두레PD와 호흡을 맞춰 최장 5년간 지원을 받으며 관광기업으로 성장 및 자립 준비

- (정책금융 연계) 정책펀드·보증 등 정책금융과의 연계 통해 지속 가능한 로컬 비즈니스 성장기반 구축

* (예) 모태펀드 지방투자 인센티브, 문화산업보증 지방기업 우대조치 등

□ 문화비즈니스 통한 지역사회 가치 환원

- (상권 협력형 가치 확산) 지역 예술인·지역문화기획자와 지역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문화예술 기반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실행 지원
 - 로컬비즈니스가 만든 문화적 가치가 상권 전체로 퍼지도록 유도
- * (예) 문화 팝업 프로젝트 : 단기 문화행사로 유입된 유동인구가 인근 상권 매출 증대로 확장
- (성장기업의 재투자 유도) 성장한 로컬 문화비즈니스가 매출·이익 일부를 지역 문화기금이나 신규 창업자 육성에 재투자하도록 우수 기업 인증·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발굴 및 검토

VI. 시·도별 추진 과제

서울특별시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9,289,813명
 - * 국내 총 인구의 18.18%, 인구밀도는 15,432명/km²로 인구 집중 지역(고밀도 도시)
 - 고령화율 20.9%(초고령사회 진입/전국 11위), 중위연령도 45.6세로 전국(46.7세) 대비 약간 낮음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82(소멸주의), 전국 16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51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14개소 적으나* 100km²당 시설 수는 78개소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
- * 서울 인구 규모 전국 최대

문화지표	서울특별시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472개(전국 2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50.58개(전국 11위)	65개
100km ² 당 시설수	78개(전국 1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 및 활동 인력 분야에서는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관련 지출비용은 전국 12위로 평균금액보다 낮음

구분	문화지표	서울특별시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152개(전국 1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186개(전국 2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1,492명(전국 1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1,020명(전국 1위)	187명
	전문인력	545명(전국 2위)	237명
	일반 상주지원	1,168명(전국 2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63.7%(전국 5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92,066원(전국 12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글로벌 예술 거점도시 위상 강화) 국제미술장터(KIAF·프리즈) 높은 관람객·판매실적 달성*, 시립발레단 창단 및 정기운영, 시립교향단 운영**
 - * 관람객 15.2만 명, 판매실적 7,700억 원대('23년, '24년)
 - ** '24년 정기공연 평균 객석점유율 86%, 유료 티켓 수입 약 24억 원 달성
- (생활 속 문화 향유 환경 확산) 시민 대상 문화공연, 문화소비 지원 '서울청년문화패스' 운영*, 야외도서관 등 문화공간 확대 운영**
 - * '24년 총 3만 2천 명 대상 지원(집행률 79%, 전년 대비 33.8%p↑)
 - ** 총 362회 운영·509만 명 방문

한계

- (문화격차)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및 지역 기반 연계 구조 개선이 과제
- (콘텐츠 다양성 부족) 음악, 미술 등 순수예술 외, 문화재,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로 서울 문화 브랜드 확산 필요
- (예술 생태계 지속성) 예술인 창작기반, 일자리, 역량강화 등 통한 신진 예술인 발굴 필요

서울특별시 중점 추진 과제

문화향유 기회 확대	1.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 (문화향유권 보장) 소득·연령별 맞춤 문화이용권 제공(서울청년문화패스),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공연봄날), 거리공연 확대 등 ◦ (기술융합 창작환경조성) 남산XR 스튜디오 운영, 공예박물관 온라인 콘텐츠 전시 2. 문화가 숨 쉬는 도서관 조성 ◦ (책읽는 서울광장) 서울야외도서관 조성·운영(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 (사유가 꽃피는 도서관) 2030세대 등이 참여하는 힙독(Hip 讀) 클럽, 국내·외 도서 전시·체험·문화공연을 제공하는 여행도서관 운영 3. 맞춤형 문화시설 확충 ◦ (문화공연 인프라 확충)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 (접근성 강화) 범용디자인(Universal design), 무장벽(Barrier-free) 적용한 촉각 전시품 및 다양한 체험교구 확대, 점자패널 등 시설 보완
매력도시 서울 조성	1. 야간문화 활성화 ◦ (야간 콘텐츠 확대) 궁궐·한옥마을·박물관 등 문화시설 야간 개방 확대 및 낭만 야간 예식 등 몰입형 야간 콘텐츠 운영 ◦ (상권 연동형 문화축제) 세종문화회관 야간 문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로 공연 기반 지역 체류 프로그램 운영 2. 365일 축제 도시 구현 ◦ (편시티 서울) 윈터·어텀페스타 등 서울 대표 사계절 축제의 연계·체계화를 통해 시민의 축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K-콘텐츠 확산 및 해외 교류 확장 기반 조성 ◦ (K-콘텐츠 확산 및 해외 교류 확장) 서울시 발레단 및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등을 통한 K-콘텐츠 확산 및 서울아트위크 운영을 통한 해외 교류 기반 조성
예술인 육성 지원 및 생태계 구축	1. 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 (예술창작활동 지원) 우수 소극장 임차료 지원(창작극장 운영), 공연예술 단체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4개 장르(연극, 무용, 음악, 전통)·경력 단계별(신진·유망·중견) 창작지원 등 예술창작활동 지원 ◦ (예술인 육성 지원) 음악·미술 분야 예술영재 300명 선발 및 체계적 영재 교육 운영(서울예술영재), 시민 성장 단계에 맞춘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2. 자치구 문화예술활동 지원 ◦ (자치구 문화시설 확충) 문예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1 자치구 1 문예회관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 (자치구 축제, 문화원 지원) 자치구별 특색있는 축제 지원,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및 자치구 지방문화원 지원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1. 문화유산자원 제도 정비 및 보존 ◦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한양의 수도성곽(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 ◦ (역사공간 정비·활용) ‘의정부지’ 유적전시관 건립·개장 및 역사유적광장 전통문화행사 거점화, 한양도성 붕괴·위험구간 11개소 해체·보수 2. 문화자원의 다각적 활용 및 가치 제고 ◦ (서울문화유산센터) 개방형 수장공간 확충(524→727㎡, 최대 2천여 점 수장) 및 관람형 수장공간 ‘보이는 수장고’ 착공(26.3.) 등 서울문화유산 향유 기반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합 前 광주광역시)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1,385,460명
 - * 국내 총 인구의 2.71%, 인구밀도는 2,888명/km²
 - 고령화율 19.4%(고령사회/전국 15위), 중위연령도 44.7세로 전국(46.4세) 대비 높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73, 전국 12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64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1개 적음, 100km²당 시설 수는 18개로 전국 3위

문화지표	광주광역시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90개(전국 14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64개(전국 10위)	65개
100km ² 당 시설수	18개(전국 3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 학예전문인력 및 활동인력 등 전반적으로 전국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은 전국 1위를 차지함

구분	문화지표	광주광역시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37개(전국 7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56개(전국 9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137명(전국 13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112명(전국 7위)	187명
	전문인력	209명(전국 8위)	237명
	일반 상주직원	158명(전국 14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54.7%(전국 15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158,460원(전국 1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실행 및 거버넌스 강화) 생활문화·지역특성화·문화산업 연계 통한 지속 가능 생태계 구축, 광주문화기관협의회(16개) 협력 통한 정책 실행력 강화
- (시민 참여·향유 확대) 생활문화동아리, 상설공연, 문화가 있는 날 등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전국 1위
-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혁신) 문화DB 구축 등 디지털 기반 문화행정 전환, '디어마이광주' 플랫폼 운영 통한 문화정보 제공 및 시민 만족도향상
- (인프라 및 산업 기반 확충) 광주비엔날레 확장 및 아트벙커·광주문학관 등 문화시설 확충, 광주이스포츠경기장, 실감콘텐츠큐브 등 거점시설 구축

한계

- (재정 및 사업운영 구조) 계획 대비 실행 예산 차이 및 환경 변화로 재정 불확실성, 기관 간 사업 중복 및 재정 분산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 한계
- (문화생태계 기반 취약) 지역 특화형 콘텐츠 부족, 청년문화일자리 축소 및 예술인 유출 등 인력 기반 약화와 문화향유층 확대 대응 부족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합 前 전라남도)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1,773,646명
 - * 국내 총 인구의 3.47%, 인구밀도는 141명/km²로 인구 감소 지역
 - 고령화율 29%(초고령사회/전국 1위), 중위연령도 49.9세로 전국(46.4세) 대비 높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31(소멸위험), 전국 1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136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74개 많으나 100km²당 시설 수는 2개로 전국 15위

문화지표	전라남도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243개(전국 4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136개(전국 3위)	65개
100km ² 당 시설수	1.96개(전국 15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 학예 전문인력은 전국 중위권이나, 그 외 문화활동인력 및 문화예술관람률, 지출비용은 하위권에 속함

구분	문화지표	전라남도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34개(전국 9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89개(전국 5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259명(전국 5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77명(전국 12위)	187명
	전문인력	88명(전국 14위)	237명
	일반상주직원	210명(전국 11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46.1%(전국 16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93,561원(전국 10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행정개편) 문화융성국 신설 관광문화체육국 분리로 문화예술·자원·산업 기능별 조직체계 개편 운영
- (시설확충) 도립미술관 개관과 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
- (행사성과) 수목비엔날레 개최 10개국 참여와 43만명 관람객 규모 국제 문화행사 성과 창출
- (산업기반) 콘텐츠산업 육성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VR·AR 제작거점 및 인재양성 기반 구축

한계

- (환경위축) 코로나19 영향 문화예술행사 온라인 전환으로 공연·전시 중심 활동 위축 지속
- (격차지속) 시 중심 시설 편중과 도서지역 여건으로 문화향유 접근성 격차 심화 문제 지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점 추진 과제

생활권 어디서나 누리는 문화환경	1.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및 격차 해소 ○ (생활권 중심 문화기반 확충) 작은영화관·생활문화센터·문화사랑방 확충을 통한 15분 생활권 문화 인프라 구축 ○ (일상 속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 찾아가는 공연·전시, 청춘문화누리터, 맞춤형 공공예술단 운영 및 대표 문화행사 정례화 ○ (예술창작 및 복지 통합 지원) 장르별 창작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예술인 안심보험 및 통합문화예술플랫폼 운영 2. 시민 참여형 생활문화 생태계 구축 ○ (생활문화 참여기반 확충)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확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문화활동 참여 플랫폼 구축 ○ (생활문화 확산 및 세대별 지원) 생활문화주간·문화의 달 연계, 청년문화예술패스 및 청소년·시니어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3. 지역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및 미래형 고도화 ○ (대형 광역 인프라 구축) 비엔날레전시관, 전문공연장,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수목비엔날레 아트센터, K-POP 아레나 건립 ○ (문화재생 및 미래지향적 전환) 아시아문화예술촌, 상무소각장 등 유허시설 문화재생, 장애인 친화 시설 조성 및 AI·VR·그린뮤지엄 등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 및 확산	1. 고유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 (문화유산) 마한유적 발굴 조사와 역사문화환경 정비 및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 (전통문화) 종가문화 활용사업 고택체험·종가음식 전시 및 학술대회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 확산, 향약 세계유산 신규 등재 추진 등 ○ (지역콘텐츠) 창의벨트 운영·창작자 양성·국제교류, 전일빌딩245 운영·세계유산 추진·문화유산 보존·야행·전통문화 프로그램 지속 확대 2.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유입 확대 ○ (문화관광 콘텐츠 강화) 지역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문화관광 프로그램 확대 ○ (체류형 관광 활성화) 27개 시·군·구 역사자원·유허시설 연계 체험·교육, 템플스테이·명상 등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확대 3. 지역문화권 연계 및 국제교류 확대 ○ (문화권) 지역 특성 기반 문화권 육성 및 생활권 중심 문화활동 확산, 지역 간 문화자원 연계 및 협력 확대 통한 문화권 기능 강화 ○ (국제교류) 비엔날레·수목비엔날레·마한문화 기반 국제교류, 지역축제의 글로벌 연계와 목포·순천·진도 문화도시 네트워크 강화 4. K-문학 허브 구축 및 세계화 ○ (K-문학 허브 구축) K-노벨문학센터 건립, 민주주의 문학 아카이브 구축 및 전시·교육·연구센터 운영 ○ (K-문학 세계화) K-문학 페스티벌 개최 및 번역·출판·국제교류 확대
문화를 통한 지역성장과 문화자치	1. 지역문화콘텐츠 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 ○ (문화산업 육성) 투자진흥지구 내 앵커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순천 기회발전특구 중심 콘텐츠산업 육성 ○ (콘텐츠 기반 조성) 실감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플랫폼 구축, 스튜디오 구축 등 지역 콘텐츠산업 기반 확대 2. 창의적 문화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 (생애주기별 교육) 예술영재, 학생·시민, 청년문화예술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청소년 지원 ○ (전문인력 양성) GCC사관학교 중심 인력양성 및 콘텐츠 프로듀서 육성 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확대 3. 지역문화 자치·협력체계 고도화 ○ (재정·거버넌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과 주민참여예산 확대, 문화기관 협의회 구성 및 문화재단 협의회 운영 ○ (기관협력) 국내문화기관, 아시아 문화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문화 추진체계 효율성 제고

부산광역시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3,232,370명
* 국내 총 인구의 15.8, 인구밀도 높음(4,197명/km²)
- 고령화율 26%(초고령사회/전국 5위), 중위연령도 48세로 전국(46.4세) 대비 높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47(소멸위험), 전국 7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45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20개 적음, 100km²당 시설 수는 19개로 전국 2위

문화지표	부산광역시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148개(전국 9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45.31개(전국 13위)	65개
100km ² 당 시설수	19.19개(전국 2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 및 활동 인력 분야에서는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관람률 및 관련 지출비용은 각각 전국 14위, 13위로 평균보다 낮음

구분	문화지표	부산광역시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44개(전국 5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120개(전국 4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241명(전국 7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177명(전국 3위)	187명
	전문인력	69명(전국 15위)	237명
	일반상주직원	432명(전국 4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57.1%(전국 14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71,957원(전국 13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문화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부산근현대역사관('24년) 개관, 시립미술관 전면 리모델링 등 노후 문화시설 개선
-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피란수도부산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24년), 문화도시 조성(영도구, '20년 ~ '24년)
- (예술인복지 강화) 문화예술지원 확대('22년 45억원 → '24년 75억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24년)
- (일상문화활동)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105개소, 생활문화센터 33개소 조성 등 일상 문화활동 시설 확충,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
- (문화자치 기반 조성) 부산문화재단 출연금 확대('20년 63억 원→'24년 150억 원)로 자율성 강화, 부산남구문화재단 설립

한계

- (문화재정 3% 목표 미달) 문화예산은 증가*했으나,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여전히 2.01%('25년) 수준 * (예산편성) '21년 2,708억 원→ '25년 3,354억 원
- (자치구·군 문화재단 설립 지체) 기초문화재단 8개구 설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16개 구·군 중 3개구 운영(금정구, 부산진구, 남구)

부산광역시 중점 추진 과제

문화예술 생태계 활력 기반 강화	1. 생태계 촉진형 문화예술교육 강화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예술교육) 놀이 중심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 (청년·중장년 아카데미) ^{청년}실습 중심 수업, ^{중장년}다양한 장르 예술 경험 교육 2. 수요응답형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 ('다봄' 쌍방향화) 플랫폼051(시민·예술인 연결), 기획형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기능 도입 ◦ ('동백전' 기능 고도화) 생활권 기반 문화공간 정보 제공, 포인트 적립 및 결제 기능 추가 3. 일상적 문화향유 및 참여 증진 ◦ (동네 일상문화 활성화) 문화돌봄사업, 생활문화라운지, 빈집 문화채움 추진 ◦ (문화공간 네트워크 지원) 생활권 단위 창작 및 향유 강화위한 '다락방' 추진 ◦ (공공도서관 생활문화공간화) 사서 맞춤형 교육, 도서관 맞춤형 지원 4. 구·군 격차 완화를 위한 특성화 ◦ (문화지형 균형화) 서부산권, 중부산권, 동부산권 거점으로 문화 활력 기반 조성 ◦ (자치구·군 문화매력 특화) 문화공간 발굴 및 상권 계획 등 특성화 전략 수립 지원
예술적 수월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	1. 문화예술인력 전문성 제고 ◦ (지속가능성)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예술인 컨설팅 지원 거점 확대(2개→5개) ◦ (실무역량 강화) 기획·브랜딩 등 실전 워크숍, 홍보·회계 등 전문 강의 제공 ◦ (인구감소지역 지원) 유희시설 활용 역량강화 센터 조성, 체류예술인과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아카데미, 워크숍, 창·제작 프로젝트 운영 및 발표지원 2. 문화예술 산업화 지원(B-컬처 미래 전략 산업 육성) ◦ (창업 지원) 창업교육, 기술융합 실험실 운영, 기술 기반 콘텐츠 유통·산업화 지원 ◦ (인력 양성) 부산오페라하우스 등 청년 대상 공연산업 전문인력 파이프라인 구축 3. 문화적 다양성 증진 ◦ (배리어프리) 지역 예술인, 단체 대상 배리어프리 향유콘텐츠 제작 지원, 시·청각 장애인 관람 보조장비 설치, 시설별 접근성 진단·평가 매뉴얼 개발
부산문화의 창의적 계승과 글로벌 확산	1.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 (문화유산 활용)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전시·교육·홍보 활용, 문화상품 개발 ◦ (원도심 근대문화유산) 근현대 문화유산 기록화, 원도심 기반 글로벌 기획자 양성 2. 부산문화의 글로벌 확산 ◦ (외국인 대상) 문화시설 표지판 정비 및 홈페이지 내 외국어 지원, 다국어 홍보 영상 제작 등 문화시설 향유 환경 정비 ◦ (공연·전시 관광상품화) 부산콘서트홀, 부산오페라하우스 등의 공연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정책 네트워크 혁신과 재정 기반 확립	1. 민관협력 및 정책 네트워크 강화 ◦ (협력위원회 내실화) 부산 유관부서 참여 확대, 의제에 따라 분과위원회 운영 ◦ (기초단체 문화재단 지원) 기초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단계별 지원, 기초문화재단 협력체계 마련 2. 정책 실행과 환류 기반 구축 ◦ (문화기반시설 종합운영계획) 문화시설 기초조사에 기반하여 수립 ◦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지역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 및 운영 프로세스 개선, 시민 대상 영향이 큰 사업 중심 문화영향평가 확대 3. 재정 확대 및 다각화 ◦ (민간 후원 활성화) 예술인 대상 펀딩 교육, 기업·예술인 매칭 통한 인식 확산 ◦ (팔길이 원칙의 지원) 심사위원 지역별 적정 안배, 사후 관리 체계 강화

대구광역시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2,348,165명
 - * 국내 총 인구의 4.6%, 인구밀도는 2,637명/km²로 인구 감소 지역(남구, 서구, 군위군)
 - 고령화율 22.8%(초고령사회/전국 9위), 중위연령도 48세로 전국(46.4세) 대비 높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54(소멸주의), 전국 9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45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20개 적음, 100km²당 시설 수는 7개로 전국 6위

문화지표	대구광역시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107개(전국 13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 수	45.3개(전국 14위)	65개
100km ² 당 시설 수	7개(전국 6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 및 활동 인력, 문화예술 관람률 분야에서는 대체로 전국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관련 지출비용은 전국 2위로 평균보다 높음

구분	문화지표	대구광역시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22개(전국 11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85개(전국 6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130명(전국 14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111명(전국 8위)	187명
	전문인력	220명(전국 7위)	237명
	일반상주직원	857명(전국 3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63%(전국 6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133,009원(전국 2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창작 기반 강화)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 제정('22년) 등 지역예술 생태계 조성 제도 기반 마련, DIMF 뮤지컬 아카데미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 (지역 대표 문화공간 조성)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대구미술관 연계 시각 예술클러스터 및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24.9월 개관기획 전시 22.4만여 명 방문)
- (생활문화 확산) 생활문화센터 조성('21년) 및 동호회 지원, 생활문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문화동호회 '20년 729팀 10,852명 → '24년 1,056팀 13,302명)
- (문화도시 브랜드 강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등 지자체 유일 글로벌 공연예술축제 20여 년 간 지속 추진, 국가대표 공연예술축제로 육성

한계

- (예산) 정책의 효과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보와 장기적 정책추진 노력 필요
- (성과 연계·확산 한계) 음악창의도시 성과의 지역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산 필요, 국제문화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체류형 지역 관광 연계 미흡

대구광역시 중점 추진 과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문화도시 조성	1. 지역 문화역량 강화 ◦ (국립시설·단체 지역 확산) 舊 경북도청 내 국립문화예술허브 조성, 대구오페라하우스·콘서트하우스·국립뮤지컬컴플렉스가 연계된 공연산업 성장허브 조성 ◦ (문화행정 수행체계 재정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조직·직무분석 기반 혁신 추진, 이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중심 지역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2. 지속가능한 예술인 창작 기반 공고화 ◦ (예술생태계 활성화) 청년예술가 육성·지원 위한 제도 기반 강화, 대구예술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강화 ◦ (복지안전망 강화) 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3년 주기) 및 맞춤형 지원체계 기반 마련, 활동 지원 내실화 및 예술인 복지를 위한 신규사업 지속 발굴 3. 주민 중심의 생활문화활동 지원 강화 ◦ (협력형 생활문화 정책) 구·군의 현장중심 기획력 및 실행력 강화 지원, 성공적인 협력사례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례의 발굴·홍보 ◦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찾아가는 예술교육(다문화·장애인·문화취약계층), 문화소외지역 방문교육, 대구특화 교육콘텐츠 육성(청소년 및 일반) 등 4. 지역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문화누림 환경 조성 ◦ (시립미술관 랜드마크化) 간송미술관 등 기관별 특성 기반 연계·협력 ◦ (도시 전체 열린 공연장化) 대구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추진, 장르별 대표 문화예술행사 및 대중문화 공연 연중 추진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명품도시 조성	1. 역사문화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및 관광자원화 ◦ (대구形 역사문화벨트 조성) 달성토성, 경상감영, 향촌문화공간 등 고대 - 중세 - 근대로 이어지는 역사문화벨트 구축으로 舊도심 문화공간 연계활성화 ◦ (생활 속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근대역사관, 방짜유기박물관, 향토역사관별 다채로운 기획전시, 우리고장 국가유산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활용사업 지원 2. 지역 문화예술 자료 발굴·보존을 위한 기반 조성 ◦ (인식 제고) 지역별 근현대 문화예술 기록 및 아카이브 현황 조사,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아카이브 수집·관리·활용의 체계 구축 ◦ (공공·민간영역 아카이브 지원) 아카이브 운영 노하우 축적 및 공유, 국가기록원,아르코예술기록원-지자체-민간 연계 통한 체계적 아카이브 정책 추진 3. 지역사 재조명 및 공유를 통한 대구 시민정신 계승 ◦ (지역사 연구 공유) 대구의 정체성과 성장사를 엮어내는 살아있는 시사 편찬 ◦ (대구시민정신) 2·28민주운동,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확산 및 계승·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및 협치기반 구축	1. 지역 대표 축제·공연 등의 K-관광콘텐츠화 ◦ (지역 대표 축제) 대구핫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국제뮤지컬축제 등 연계 관광상품 개발 2. 지역 특화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 (아트마켓(Market) 기능 강화)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추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글로벌 아트마켓 활성화 ◦ (해외오페라 극장 교류 다변화 및 공동제작) 기존 유럽 극장 위주에서 중국, 일본 등 교류국가 다변화 및 공동제작 추진 3.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 (AI 콘텐츠) 인재 양성, AI 기반 창·제작 지원, AI 기업·창작자 협력 모델 마련 ◦ (게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운영으로 게임산업 기반 조성, 대구게임테크허브 사업으로 지역 게임기업 레벨업 지원 ◦ (웹툰) 웹툰 전문기업 및 IP 발굴·육성, 글로벌 마케팅 지원 및 해외진출 4. 출판산업 생태계 강화 및 AI영화 창작 지원 ◦ (자생적 생태계 조성) 출판IP 원스톱 제작 지원, 출판콘텐츠 OSMU 활성화 및 뉴플랫폼 퍼블리싱 지원 ◦ (AI 영화 창작 랩) 차세대 AI 영화 창작자 육성, 영화제 출품 지원, AI+인문학 융합 교육 모델 구축(대학 등 협력)

인천광역시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3,061,002명
 - * 국내 총 인구의 5.99%, 인구밀도는 2,859명/km² / 인구 감소 지역(강화군, 옹진군)
 - 고령화율 19.6%(고령사회/전국 13위), 중위연령도 45.1세로 전국(46.4세) 대비 낮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75(소멸주의), 전국 14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42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23개 적음, 100km²당 시설 수는 12개로 전국 4위

문화지표	인천광역시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126개(전국 12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42개(전국 17위)	65개
100km ² 당 시설수	11.7개(전국 4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 활동 인력 분야,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등 전반적 분야에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관람률은 전국 3위로 평균보다 높은편

구분	문화지표	인천광역시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27개(전국 10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40개(전국 13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150명(전국 11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153명(전국 4위)	187명
	전문인력	100명(전국 13위)	237명
	일반상주직원	308명(전국 6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67.1%(전국 3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93,310원(전국 11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만족·행복 향상) 시민들의 여가생활 만족도와 삶에 대한 행복도 지표상승
 <제2차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목표 대비 성과>

구분	2019년	2024년 목표	2024년 현황
시민문화자치도	12억 원	25억 원	2억 원
여가생활 만족도	2.97점	3.5점/5점	3.19점
삶에 대한 행복도	5.87점	6.5점/10점	6.93점

- (우수사례) ▲ 지역별 생활문화활동 다양화 ▲ 지역특화 콘텐츠산업 육성
 ▲ 생활권 로컬관광산업 육성 ▲ 스마트 MICE산업 특성화 등

한계

- (제도적 기반 미흡) 법적 근거·조직·재정·민관 협력 기반 전반적으로 미흡
- (예술인 복지와 창작 환경 취약) 예술인 복지 정책 및 창작 지원 시스템 실효성 부족, 공모 중심의 단발성 사업 구조로 창작 연속성 보장 어려움
- (지역 내 문화 격차 지속) 원도심·외곽 간 시설·예산 편중, 프로그램·인력 배치 격차 심화

인천광역시 중점 추진 과제

참여기반 문화자치 강화	1. 문화자치 추진기반 구축 ◦ (법·제도) 문화자치 근거 조례 제·개정, 법정위원회 및 법정계획 실태 조사·정비 ◦ (행정구역) 개편 대응 문화행정 지원, 권역별 균형 배분 기준·쿼터 제도화 2. 지역문화 협력체계 내실화 ◦ (광역·기초 협력) 인천시·자치구 협의체 구성, 광역·기초문화재단 공동사업 추진 ◦ (문화도시 간 교류) 해양·평화 등 인천 정체성 기반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3. 문화재정 확충 및 다각화 ◦ (문화예산 단계적 확대) 재정계획 로드맵 마련, 기부금 활성화 ◦ (신규 재원 유치) 인천공항 연계 신규재원 확보, 체육시설 활용 세입 확대 4. 문화역량 및 전문성 강화 ◦ (문화전문인력) 문화전문인력 아카데미, 청년 문화기획자 인턴십 운영 ◦ (문화시설·단체 특성화) 공립박물관 차별화·현대화, 지방문화원 특성화 지원
포용적 문화생태계 조성	1. 생활문화 성장 기반 내실화 ◦ (네트워크 기반) 인천생활문화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네트워크 기반 지원 ◦ (정책확립) 인천생활문화 진흥사업 내실화,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 작성 2.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 ◦ (기반강화) 제3차 교육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 ◦ (지역 밀착형)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활성화, 지역예술교육 거점 확산 학교 연계 강화 3. 예술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 (정책체계화) 복지증진 조례 개정, 제4차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 (삶의 기반 강화) 주거 안정, 예술인 아이돌봄, 예술인 용자 지원 등 4. 생활 속 문화다양성 증진 ◦ (포용적 문화도시 브랜드) 배리어프리 문화향유 도시육성, 디아스포라영화제 경쟁력 강화 ◦ (문화다양성) 해양문화, 평화도시 인천, 문화다양성 리빙랩 운영 등
지역특화 문화자원 미래자산화	1. 지역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 ◦ (개항도시) 근대문화유산 밀집지역을 ‘유산지구’로 지정, 연계 관광 사업 운영 ◦ (지역유산제도) 조례에 따른 지역유산 체계적 보존·관리·활용 강화 2. 지역문화예술 경쟁력 강화 ◦ (공연예술) 스토리뱅크 구축 및 레퍼토리 개발로 공연예술 지속성·다양성 제고, 공연예술인·시민 위한 창의예술연습공간 조성 ◦ (유통지원) 아트마켓 개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을 글로벌 음악축제로 육성 3. K-콘텐츠산업 기반 확충 ◦ (K-컬처 거점) 문학 K-컬처 클러스터 조성, 인천형 K-컬처 산업 육성,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화) 로컬콘텐츠 개발 지원, 인천 스토리 IP랩 구축 4. 차별화된 로컬관광콘텐츠 발굴 ◦ (평화관광)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확대 및 DMZ 평화아트투어 개발 ◦ (테마관광) 개항장 문화투어, 산업유산 워킹투어, 인천 배경 K-콘텐츠 체험투어
지역문화 혁신 및 균형 발전	1. 지속가능한 문화재생 활성화 ◦ (유희공간의 문화적 전환) 폐교 문화재생 사업, 유희부동산·빈집 예술공간화 ◦ (역사문화유산 활용) 군사시설, 근현대문화유산, 산업 유산의 문화시설화 2.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체계 고도화 ◦ (체계 재정비) 문화시설 균형 배치 계획 수립, 재생 문화공간 관리 ◦ (시설확충) 인천뮤지엄파크, 아트센터인천 2단계, 캠프마켓 도서관 건립 3. 문화로 돌봄 확산 ◦ (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 문화시설 활용 예술치료 사업 운영 ◦ (문화활동)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장애인 지원 확대, 15분 독서생활권·독서문화 확산 4. 인천 창의산업 생태계 형성 ◦ (인천형 파견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후속 지원 ◦ (창업 활성화) 예술창업 생애주기(준비-사업화-초기) 맞춤형 지원

대전광역시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1,442,034명
* 국내 총 인구의 2.82%, 인구밀도는 2,714명/km²
- 고령화율 19.8%(고령사회/전국 12위), 중위연령도 44.7세로 전국(46.4세) 대비 낮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74(소멸주의), 전국 13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44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21개 적음, 100km²당 시설 수는 12개로 전국 5위

문화지표	대전광역시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63개(전국 15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44개(전국 16위)	65개
100km ² 당 시설수	11.6개(전국 5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 문화 활동 인력은 전국 중하위권에 있고 문화 예술 관람률 및 지출 비용은 상위권으로 평균보다 높음

구분	문화지표	대전광역시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20개(전국 12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43개(전국 11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70명(전국 15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129명(전국 6위)	187명
	전문인력	260명(전국 6위)	237명
	일반상주직원	211명(전국 10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64.9%(전국 4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127,797원(전국 3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문화예술 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발족 및 문화예술 위원회 출범 통한 정책협의 기반 마련, 지역 예술인 대상 창작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확대,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지원 확대
- (생활문화 활성화 및 문화향유) 시민 참여 프로그램(생활문화동호회, 거리공연, 마을합창단 등)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및 학생 문화예술관람지원 확대
- (문화인프라 확충 및 문화유산 활용)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기획·디자인 추진,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대전관 유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전수 조사 및 우수자원 발굴

한계

- (기반시설 부족 및 지역 내 격차) 서구·유성구에 시설 집중, 그 외 자치구 미술관 미설치 등 기반 불균형
- (문화예술 인력 유출) 지역 대학 예술분야 학과 감소, 문화예술 전공 학생들의 지역 외 이동 심화

대전광역시 중점 추진 과제	
시민중심의 문화정책 체계 구축	1. 차별없는 문화향유를 위한 대전시민문화기본권 보장 ○ 문화기본권 조례제정,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시민 중심형 문화정책 추진 기반 마련 2. 지역문화정책 협력체계 구축 ○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 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책 연계 강화, 성과 공유 및 환류체계 구축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활용	1.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보존·활용 체계 마련 ○ 문화유산 등록·기록화 및 예비문화유산 선정 추진, 도시기본계획 및 재건축 등 도시관리 협력체계 구축 2. 근현대·전통문화유산 도시자원화 추진 ○ 소재동 철도관사촌, 옛 테미도서관 리노베이션 통한 문화공간 조성, 첫대전시청사 복합문화시설 활용 3. 지역문화 활용 전통·문화행사 추진 ○ 각 구별 국가·지역유산 활용 문화제 운영, 전통민속제례 및 지역축제 통한 문화계승 4. 도시정체성 기반 대표 문화예술자원 특화 및 관광 활성화 ○ 예술가·과학자·시민의 상호 협력 및 과학·예술·인문 분야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아티언스 페스티벌 콘텐츠 기획 ○ '빵의 도시' 정체성 기반 빵 축제 육성, 3대하천 활용한 야간관광 활성화
예술 창·제작 및 복지 지원, 매개·유통 활성화,	1. 지역예술인 자생력 강화 및 창작 활성화 ○ 청년예술인 지역 정착 및 예술인 안전망 구축, 지역작가 전시프로젝트, 예술인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통한 창작지원 확대 2. 예술인 생활기반 지원 및 권익 보호 ○ 예술인 복지센터 운영 통한 건강검진·법률·심리상담 지원,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서비스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3. 예술매개 유통 활성화 ○ 대전 미술품 직거래 프리마켓 운영, 청년작가 유통지원, 대전 서구 아트 페스티벌 개최 통한 예술 유통 및 시장 확대
주민 생활문화·문 화예술교육· 문화향유 증진	1. 생활 속 풍요로운 문화예술 환경 조성 ○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마음대로 예술공간' 운영 통한 일상 문화향유 확대, 생활문화동호회 및 대전마을합창단 지원 2. 언제나 곁에 있는 우리동네 생활문화 기반 구축 ○ 10분 생활문화권 조성, 마을예술창작소·마을극장 등 지역문화공간 조성 3. 대전 예술단의 대내외적 위상 강화 ○ 시립예술단의 마스터클래스 고도화, 대전시민예술단 확대
문화시설 조성·운영	1.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전략적 확충 ○ 이종수도예관 조성, 대전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 지원 2. 신축·유휴·대표 공간을 연계한 유기적 특성화 ○ 신축·발굴된 시설과 기존 공간의 기능을 재편하여 전체 문화공간의 중복성을 줄이고 공간별 특성화 추진 3. 지역문화원 이전 및 기존시설 문화시설로 재편 ○ 문화시설의 선진화 및 활동공간 확충 통한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 향유 확대
문화산업 육성	1. 웹툰 산업기반 조성 ○ 과학기술 융합, IP 확장, 우수 인력양성을 통한 웹툰 허브 조성 2.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 스튜디오 큐브 등의 기존 영상 인프라와 연계해 특수영상 거점도시로 도약, 융복합 콘텐츠 산업 집적단지를 조성 3. 스포츠테크산업 및 e-스포츠산업 육성 ○ 대전 e스포츠 경기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e스포츠 대회 유치 및 시민 참여형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e스포츠 대표도시로 발돋움

울산광역시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1,087,089명
* 국내 총 인구의 2.13%, 인구밀도는 1,029명/km²
- 고령화율 19.5%(고령사회/전국 14위), 중위연령도 45.3세로 전국(46.4세) 대비 낮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63(소멸주의), 전국 11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45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20개 적음, 100km²당 시설 수는 5개로 전국 10위

문화지표	울산광역시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49개(전국 16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45개(전국 15위)	65개
100km ² 당 시설수	4.6개(전국 10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기반시설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은 평균보다 많은 편이나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 문화예술 관람률 및 지출비용 등 전반적으로 평균보다 적거나 낮음

구분	문화지표	울산광역시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7개(전국 16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53개(전국 10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37명(전국 16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42명(전국 15위)	187명
	전문인력	292명(전국 3위)	237명
	일반상주직원	86명(전국 15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58.8%(전국 11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95,449원(전국 9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문화자치 기반) 문화협력위원회 근거 마련·문화도시추진위 구성·울주 문화재단 출범, 메세나 확대(수혜단체 8개→18개) 및 국비사업 확보
- (생활문화 기반) 생활문화센터 6개소 확충·문화예술교육 운영 및 찾아가는 교육 추진, 창작준비금 확대·청년예술지원
- (지역자원 활용) 공업축제 35년만의 재부활·정원박람회 유치·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생태정원화 추진
- (문화도시·행정) 광역 최초 법정문화도시 지정·구군특화사업 15건·청년 프로젝트 추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조직개편

한계

- (생활문화 내실 부족) 생활문화센터 확충 중심으로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미흡, 문화예술교육 성과관리 체계 부족
- (문화격차·기반 미흡) 취약계층 접근성 부족, 국제교류 미흡 및 아카이빙·기초자원 연구 부족

울산광역시 중점 추진 과제

함께 키우는 문화생태계	1. 지역 문화기관 역량 강화 ◦ (기관역량·재원기반) 경영컨설팅·전문교육 확대 및 메세나 결연·매칭펀드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2. 지역 문화인력 양성 및 재교육 확대 ◦ (인력양성·정주기반) 인턴십·레지던시 및 재교육 아카데미·복지지원센터 추진 통한 청년예술가역량·지역예술인정주환경 강화 3.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체계 확립 ◦ (창작·생활안정) 창작스튜디오 조성과 창작기금 지원체계 강화 추진, 주거복지 연계 프로그램 운영 확대 4. 문화행정·보조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관리·환류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기반 성과지표 마련 및 피드백·평가 통한 보조금 운영 개선
언제나 가까이 누리는 생활문화	1. 생활문화센터 운영 내실화 ◦ (운영·참여 확대) 운영인력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버스킹 조성 통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2. 찾아가는 문화향유 서비스 ◦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 이동형 박물관·작은미술관 및 찾아가는 공연·문화교육 통한 취약계층 지원 3. 문화격차 해소 및 접근성 보장 ◦ (문화복지 및 공간기반) 통합문화이용권·아이문화패스 및 문화공장·예술공장 등 10개 사업 추진
지역 문화자원 활용 기반 구축	1. 근현대 문화자산 아카이빙 구축 ◦ (디지털 기반) 통합 아카이브 구축 및 암각화 다국어(4개국어) 해설·연구기관 협업 확대 2. 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암각화 테마공원·키네틱아트 및 마두회·쇠부리 등 축제 콘텐츠 브랜드화 3. 문화연구·아카이빙 협력 플랫폼 조성 ◦ (학술연구 및 데이터 기반)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및 국제포럼·암각화 학회 등 학술 네트워크 확대
세계와 이어지는 문화 네트워킹	1. 지역문화산업과 청년창업을 연계한 혁신생태계 구축 ◦ (클러스터 조성 창업지원) 창작창업펀드 및 콘텐츠기업지원센터·코리아랩 통한 창업·제작 기반 구축 2. 국제 문화교류 페스티벌 운영 ◦ (국제교류) 해외 교환프로그램 확대 및 K-POP 등 국제공연·전시 운영 3. 디지털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 (유통확장) 디지털아트랩·미디어월 구축 및 울산문화24 통한 콘텐츠 제작 해외 유통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390,923명
 - * 국내 총 인구의 0.77%, 인구밀도는 855명/km²
 - 고령화율 12.8%(고령화사회/전국 17위), 중위연령도 39.9세로 전국(46.4세) 대비 낮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1.13(정상), 전국 17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74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9개 많음, 100km²당 시설 수는 6개로 전국 8위

문화지표	세종특별자치시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29개(전국 17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74개(전국 8위)	65개
100km ² 당 시설수	6.2개(전국 8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 전문활동인력은 전국 최하위로 평균보다 매우 낮으나, 문화예술 관람률 전국 2위,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전국 5위

구분	문화지표	세종특별자치시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4개(전국 17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18개(전국 16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19명(전국 17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21명(전국 17위)	187명
	전문인력	58명(전국 16위)	237명
	일반상주직원	38명(전국 17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73.3%(전국 2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126,870원(전국 5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문화브랜드와 도시재생) 여민락 정신 기반 문화브랜드화 및 '청춘 조치원' 추진으로 구도심·신도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 (문화거점과 활동기반) 조치원역·문화정원·한림제지 3개 거점 연계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가치 창업 활동 기반 구축
- (창작기반과 문화향유 확대) 시립예술단 창단 및 청소년(9~24세) 교육·공연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시민 문화향유 확대

한계

- (문화시설 불균형) 예술의전당·박연문화관 등 주요 시설 신도심 집중으로 구도심 문화기반 부족
- (지역격차 지속) 읍면동 복합센터 확충에도 문화기반시설 격차 지속으로 지역 간 문화불균형 심화

세종특별자치시 중점 추진 과제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환경	1.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 ◦ (찾아가는 여민락 아카데미) 인문·문자·디지털예술 강의 운영을 통해 문화 접근성 확대 및 문화인력 양성 ◦ (컬처로드 및 문화행사) 컬처로드(연 113회), 2027 국제 비엔날레 등 전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밀착형 문화환경 구축 2. 생활권별 거점 공간 연계를 통한 문화향유 극대화 ◦ (문해교육·점자도서관 공연) 온·오프라인 문해교육 및 점자도서관 공연 운영 통해 취약계층 문화향유 확대 ◦ (행복누림터·도서관 연계) 행복누림터 25개소 및 공공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통해 생활권 문화서비스 강화 3. 시민이 함께 설계하는 문화정책 수립 ◦ (세종시민문화계획 수립) 지역문화진흥계획(5개년)과 연계, 지역예술인 지원·문화접근 형평성·문화격차 해소 등을 고려하여 문화정책 수립 ◦ (시민·지역예술인 참여 확대) 정책연구용역(실태·설문조사), 분야별 예술인 간담회, 타운홀 미팅, 시민문화계획추진위원회를 통해 시민 주도 아젠다 발굴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통한 지역발전	1. 세계적인 박물관 도시 조성 ◦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5개관 조성 및 시립박물관(27 준공)·민속박물관 이전을 통해 박물관 인프라 구축 ◦ (박물관 콘텐츠 확대) 월인석보·월인천강지곡 확보 및 해외박물관 협약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2.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 (연동예술문화단지 조성) 연동면 내관역 미술마을·장욱진 기념관 운영 및 시민예술가 양성 프로그램 추진 ◦ (한솔동 백제고분 명품화) 한솔동 고분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경관 정비 및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 3. K-문화콘텐츠 기반 조성 ◦ (CKL-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콘텐츠코리아랩을 기반으로 세종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콘텐츠 산업 토대 구축 ◦ (세종콘텐츠진흥원 설립) 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전담기관 부재의 한계를 극복, 문화콘텐츠 인재 양성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K-문화콘텐츠 수도로 도약 ◦ (MICE 기반 마련) 행복청·민간투자 협의를 통해 K-Pop공연·국제회의 등 다목적 MICE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	1. 공연예술 창·제작 기반 강화 ◦ (창·제작 공연 확대) 문화예술회관 중심 상주단체 연계 제작공연 추진 및 지역 예술단체 공동제작·시민 참여형 콘텐츠 발굴·운영 ◦ (시 대표 공연 육성) 창·제작 브랜드 공연 기획·개발 및 레퍼토리화·순회 공연을 통해 '제작→유통→산업화'로 이어지는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구축 2. 지역 거점 공연예술관광지구 조성 ◦ (조치원 소극장·문화지구 조성) 조치원 소극장 조성 및 공연예술관광지구(문화지구) 지정·육성을 통해 세종시 균형발전과 북부권 공연예술 중심지 실현 ◦ (문화예술인의집·예술인 육성) 지역예술인 거점시설 조성 및 신진·유망·청년 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3. 문화예술 중심의 융합지구 조성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 나성동 일원을 문화산업·지역상권 융합지구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 (비엔날레 전시관·미술관 네트워크) 기획전시형 핵심 거점시설을 운영하고, 분산형 미술관 네트워크 조성(비엔날레 전시관·장욱진기념관 등 연계)

경기도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13,761,783명
 - * 국내 총 인구의 26.94%, 인구밀도는 1,366명/km²
 - 고령화율 18.4%(고령사회/전국 16위), 중위연령도 44.4세로 전국(46.4세) 대비 높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79, 전국 15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46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19개 적음
100km²당 시설 수는 6개로 전국 9위

문화지표	경기도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633개(전국 1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46개(전국 12위)	65개
100km ² 당 시설수	6.2개(전국 9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 활동 인력, 문화예술 관련 지출 비용 등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나 문화예술 관람률, 전문인력 활동은 평균보다 낮은 편

구분	문화지표	경기도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56개(전국 2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139개(전국 3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856명(전국 2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753명(전국 2위)	187명
	전문인력	181명(전국 11위)	237명
	일반상주직원	2,268명(전국 1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58.6%(전국 12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127,110원(전국 4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문화자치) 문화자치 기본조례('21년) 제정과 4년간 시군 14개 공모(24.9억 원) 추진으로 도-시군 협치 기반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 (문화복지) 문화누리카드 224만매 발급(2,697억원), 경기도 문화의 날 501개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교육(171억원, 2,862개 단체·시설등 지원) 등 생애·계층별 문화향유 지원 확대로 보편적 문화접근성 제고
- (창작기반)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27,155명), 예술단체의 활동 지원(262개 사업, 130억 원), 상주단체 74개 육성으로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 (공간·유산) 지붕없는 박물관 30개·생활문화센터 20개 조성, 유희공간 재생과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총사업비 250억 원, '24년 11월 개관)으로 거점 강화

한계

- 과제 실천성 담보를 위해 정책 수립 체계 개편 필요
 - 종합계획 수립 시 제시한 실행과제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 실무부서의 검토와 중간 점검 미흡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별개로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과제의 실천성 강화 필요

경기도 중점 추진 과제	
문화시민 역량제고	◦ (문화자치 활성화) 시·군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 역량강화, 활성화 지원 ◦ (전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 생애주기 문화 배려계층 대상 문화 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수요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장애예술인(단체)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성장 기반 마련
문화자치 기반조성	◦ (유희공간 문화재생) 지역에 방치된 소규모 유희·폐시설(공간)을 ▲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공간 ▲ 전문예술인 창작활동 공간으로 조성 ◦ (경기도 사진갤러리 운영) 유희공간 문화재생을 통해 도대표 사진복합 문화공간 『경기사진센터』 운영(조경학관, 학생회관 2개동 2,161.31㎡ 리모델링) ◦ (지붕없는 박물관) 지역 문화·생태·역사 거점공간 및 인증공간 운영·지원, 지역 문화활동 추진 역량 강화 및 홍보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지역 소재 예술인 및 기관 대상 ‘경기도 문화의 날’에 추진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회공연관람권) 장애인·65세 이상 노인·임산부, 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1만 원으로 공연관람이 가능한 ‘만원의 행복’시행 ◦ (거리로 나온 예술) 예술인·예술단체의 거리예술활동 및 문화소외시설 방문공연활동 지원 ◦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도내 거주 일반·신진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연 150만 원) 지원 ◦ (예술인 창작지원) 예술 장르별·창작 단계별 지원을 통한 지속적 창작 기반 조성 및 상담 등 예술인 권익보호로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문화유산 보존·활용	◦ (국가유산 적기 보수 및 복원) 보수국가유산 보수·정비, 발굴, 복원, 상시 관리, 토지매입 등 특별국가유산 훼손 방지를 위한 일상관리, 경미수리, 모니터 ◦ (경기도 비지정유산 조사 및 관리) 실태조사(현장, 서면)를 통한 비지정유산 발굴 및 조사, 비지정유산 사진전 등 도민 활용 콘텐츠 마련 ◦ (경기도 신규 지정·등록 문화유산 기록화) 과학적 분석, 3D스캔, 영상촬영, 실측조사 등의 방법을 통한 기록화, 문화유산 언론매체 홍보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1,507,217명
 - * 국내 총 인구의 2.95%, 인구밀도는 90명/㎢, 인구 감소 지역
 - 고령화율 27.7%(초고령사회/전국 3위), 중위연령도 49세로 전국(46.4세) 대비 높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38(소멸위험), 전국 3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165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100개 많으나 100㎢당 시설 수는 2개로 전국 16위

문화지표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250개(전국 3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165개(전국 2위)	65개
100㎢당 시설수	1.5개(전국 16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는 전국 3위, 7위로 평균보다 많으나 문화예술 분야 활동인력 및 관람률, 지출비용은 전국 하위권으로 평균보다 낮음

구분	문화지표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55개(전국 3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78개(전국 7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225명(전국 8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61명(전국 14위)	187명
	전문인력	43명(전국 17위)	237명
	일반상주직원	288명(전국 8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58.1%(전국 13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13,129원(전국 17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문화예술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지역문화재단협의회를 통한 광역·기초 문화재단 협력체계 강화, 민간 협력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 (문화가 있는 삶)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확대('19년 454건, '24년 953건), 문화 기반시설 확충('19년 234개소→'24년 261개소), 생활권 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문화자원 및 콘텐츠 발굴·육성)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발굴, 지역작가 전시·판매의 장 마련으로 창작·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 일자리 창출) 문화도시 활용 일자리('23년, 203명) 및 폐산업 시설 활용 일자리('23년, 47명) 창출, 청년예술인 일자리 창출 사업(청년예술인 교육이음)

한계

- (문화격차) 넓은 면적 대비 낮은 인구수를 보유한 지역 특성상 기초 생활인프라 기준 미달, 지역 내 문화 편차도 존재
- (정책 방향성 부재) 획일화된 지역 축제, 지역 특색 담은 문화산업 육성 부족
- (재정 불안정) 문화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지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마련 필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점 추진 과제

문화기본권 기반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	1. 지역예술 창작·유통 및 전문인력 기반 강화 ◦ (지역예술인 자립·성장)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활동 지원, 우수 지역예술 콘텐츠의 도내·외 유통 및 시장진출 확대 ◦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 문화기획·예술교육·콘텐츠 등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를 연계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심 전문인력 공동 활용 2.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 확대 ◦ (문화접근성 개선) 산간·농산어촌·접경지역 등 문화취약지역에 찾아가는 공연·전시·문화예술교육 및 이동형 문화서비스 확대 ◦ (생활문화환경 조성) 도서관·박물관·미술관·생활문화센터 등 생활권 문화 거점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주민 수요 기반 프로그램 확대
3특 연계 강원형 문화 균형성장	1. 시군 연계 문화생활권 및 성장거점 조성 ◦ (3특 연계 문화생활권 조성) 도내 2개 이상 시·군의 문화시설·유희공간·콘텐츠·인력을 연계한 문화활동 거점 및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5극3특 발전전략과 연계한 강원형 문화생활권 조성 ◦ (문화도시 권역 거점화) 춘천·강릉·영월 문화도시와 속초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인력·콘텐츠·문화시설 등 축적된 성과를 인접 시·군과 연계·확산하여 권역별 문화성장 거점으로 육성 2. 권역 문화시설 및 문화생활권 연계 강화 ◦ (국립문화시설 연계) 국립국악원 강원분원과 국립중앙도서관의 평창 국가문헌보존관을 지역 문화시설·예술인·문화기관과 연계한 강원권 문화거점으로 육성 ◦ (문화생활권 연계) 산업·혁신·관광거점과 인접지역 문화시설·생활문화공간을 연계하여 주민·근로자·생활인구의 문화적 정주여건 개선
고유 문화자원의 콘텐츠화 및 지역활력 제고	1. 강원 특화 문화자원의 보존·활용 ◦ (권역 문화자원 연계·활용) DMZ·접경지역과 산악·고원·동해안의 역사·생태·생활 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하고,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특화 문화콘텐츠 및 대표브랜드로 육성 ◦ (폐광지역 문화재생) 폐광지역의 광업시설·탄광마을·노동·생활문화 등 산업유산을 기록·보존하고 문화예술·콘텐츠와 연계한 지역재생 자원으로 활용 2. 지역문화 브랜드 및 콘텐츠 확산 ◦ (문화자원 브랜드화) 지역 고유 문화자원의 콘텐츠·상품화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유통 및 국내외 시장진출 확대 ◦ (국내외 문화교류)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컬100 등과 연계하여 지역예술인·단체 및 우수 콘텐츠의 국내외 교류·확산
문화콘텐츠 산업 및 문화자치 기반 강화	1.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 (지역특화콘텐츠 육성) 지역문화자원 기반 콘텐츠의 기획·제작·사업화·투자·유통을 연계하고 지역 콘텐츠기업과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 (영상·로컬문화산업 육성) 영상물 촬영 유치, 지역 영상인력 육성 및 로컬 문화자원 기반 창업·사업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2.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정책기반 구축 ◦ (지역문화 협력체계) 강원 5극3특 공동기획단 및 강원지역문화재단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도 - 시군 - 문화기관 간 정책협력 및 공동사업 강화 ◦ (재정·성과관리) 5극3특 문화협력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소멸 대응기금 등과 연계하고 지역문화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강화

충청북도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1,600,787명
 - * 국내 총 인구의 3.13%, 인구밀도는 220명/km²로 인구 감소 지역
 - 고령화율 23.9%(초고령사회/전국 8위), 중위연령도 47.1세로 전국(46.4세) 대비 높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48(소멸위험), 전국 8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92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27개 많으나 100km²당 시설 수는 2개로 전국 14위

문화지표	충청북도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146개(전국 10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92개(전국 6위)	65개
100km ² 당 시설수	1.97개(전국 14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예술 관련 전문 인력 및 일반 활동 인력은 전국 중위권이나, 그 외, 문화·예술 법인 단체 수, 학예·문화예술교육사 수 등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속함

구분	문화지표	충청북도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9개(전국 15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42개(전국 12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140명(전국 12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69명(전국 13위)	187명
	전문인력	272명(전국 5위)	237명
	상주일반직원	307명(전국 7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60.5%(전국 9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59,306원(전국 15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문화예산 확대) 문화예산 비중 1.75% 달성으로 문체부 권고안(1.8%) 근접 및 재정 기반 확대
- (문화기반과 인력양성) 문화전문인력 105명 이상 양성 및 문화예술회관·도서관 등 생활문화시설 확충
- (문화향유 확대) 문화누리카드·찾아가는 공연·작은영화관 등 통해 도민 문화접근성 지속 개선
- (지역문화 발굴과 세계화) 범주사 세계유산 등재·제천국제영화제 8만 관객 등 지역문화 브랜드 강화

한계

- (전문인력 활용 부족) 100명 이상의 문화전문인력 양성에도 배치·연계 체계 부족으로 지역 내 활용 한계 지속
- (거버넌스·콘텐츠 미흡) 문화재단 중심 협력체계 미흡 및 대표 문화콘텐츠 부재, 문화재정 확보 필요

충청북도 중점 추진 과제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기반 조성	1. 창조적 문화공간 조성과 지역문화 확산 ◦ (문화공간 조성) 유희공간 문화재생 및 창조적 문화공간 조성 ◦ (문화확산 지원)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유아·청소년 대상 문화 예술체험 지원 2. 지역문화 중장기 전략 수립 ◦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정책 분석,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정책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지역 고유 문화가치를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문화예술 기반 조성 및 지역문화 브랜드 육성	1. 문화예술 기반 조성 ◦ (문화기반 지원) 지역균형 문화기반 지원을 위한 미술관·박물관·문화예술회관 확충 2. 지역문화 브랜드 육성 ◦ (지역문화자원 활용) 직지의 세계적 브랜드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행사 추진, 공예문화산업육성 지원 ◦ (문화예술 활성화 네트워크) 박물관·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전시 프로그램 운영
예술환경 조성 및 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	1. 보편적 예술 향유 지원체계 구축 ◦ (지역 예술 거점기능 강화) 충북문화재단, 도립교향악단, 충북도립극단 등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거점 운영 ◦ (예술인 지원체계) 공연예술 인프라 지원, 예술인·예술단체 지원으로 안정적 창작기반 마련 2. 다양한 예술의 장 마련 ◦ (공연·전시 지원) 품격있는 공연·전시, 예술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충북예술 활성화 ◦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도민 향유 기회 확대 및 체계적 문화예술 교육 추진 3.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 (콘텐츠 개발 지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 전문가·스타트업 육성 ◦ (콘텐츠산업 발굴 지원) 도민 AI활용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AI 미디어센터 운영
도민의 국가유산, 충북의 미래가치 실현	1. 국가유산 보존과 지속가능한 가치창출 기반 마련 ◦ (충북형 국가유산 비전 확립)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및 진흥 연구 ◦ (국가유산 보존 및 안전관리) 문화유산의 선제적 정비 및 안전망 강화 2. 국가유산 활용 가치 확산 및 충북 역사정체성 강화 ◦ (국가유산 향유 증진)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 확산, 자연유산 기본계획 수립 ◦ (역사 정체성 공유) 충청북도지 편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무형유산 전승체계 구축 3. 종교문화 가치 창조 ◦ (종교문화 인프라 개발)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및 종교문화 인프라 구축 ◦ (종교문화 상생 체계 구축) 종교문화행사 추진, 종교문화체험 및 인성교육

충청남도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2,138,785명
 - * 국내 총 인구의 4.19%, 인구밀도는 270명/km²로 인구 감소 지역
 - 고령화율 24.2%(초고령사회/전국 6위), 중위연령도 47.1세로 전국(46.4세) 대비 높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46, 전국 6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95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30개 많으나 100km²당 시설 수는 3개로 전국 11위

문화지표	충청남도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203개(전국 7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95개(전국 5위)	65개
100km ² 당 시설수	2.5개(전국 11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 활동 인력, 문화예술 관련 지출 비용은 전국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관람률은 77.7%로 전국 1위

구분	문화지표	충청남도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42개(전국 6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59개(전국 8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317명(전국 4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105명(전국 9위)	187명
	전문인력	185명(전국 9위)	237명
	상주일반직원	209명(전국 12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77.7%(전국 1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99,716원(전국 7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민관협력 기반 문화정책 수립) 민간·시군 의견 반영 계획 수립 및 '충남 문화비전2030' 연계 문화환경 조성
- (문화향유 보편화와 일상화) 문화소외계층 지원·민간참여 확대 및 생활 문화 정책화 통해 도민 문화향유 확대

한계

- (실행계획 구체성 부족) 정책 방향 중심 계획으로 실행방안 미흡 및 정책여건 미반영으로 실효성 한계
- (정책구상 단계의 중기계획) 정책 관계자 및 당사자 간 논의와 구체적 계획 없이 이상적인 정책 방향을 실행계획에 포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계획 수립

충청남도 중점 추진 과제

도민 문화누림 보편화	1. 도민 문화예술 기회 확대 ◦ (예술공연 기회 확대) 기획공연 6개 주제 운영 및 찾아가는 공연(40개 단체),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 개최 및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 통해 관람기회 확대 ◦ (도립예술단 통합 운영) 공립 5개 단체를 단계적으로 통합('27년) 및 순회 공연 통해 문화격차 완화 2. 사회적 약자 문화활동 보장 ◦ (우선입장 제도 도입) 유아동·임산부 대상 전국 최초 조례 제정 및 행사·시설 우선입장 운영 ◦ (문화소외계층 지원) 찾아가는 공연 樂樂·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및 합창 대회 통해 참여기회 확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3. 도민 문화인프라 확충 ◦ (문화시설 건립 확대) 충남미술관·예술의전당·이스포츠경기장 등 다수 시설 건립 ◦ (실태조사) 도내 시설 기준 실태조사 및 노후도 분석 4.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제공 ◦ (미래형 도서관 구축) 위케이션·전자책 구독형 서비스 및 무장애 공간 확대 통한 이용환경 개선 ◦ (디지털 창작) 메이커 프로그램(코딩·3D프린터 등)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운영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1. 충남 문화정책 기반 조성 ◦ (발전계획) 민관합동 지역별 계획 수립 및 도민 의견수렴 통한 정책 기반 구축 ◦ (거버넌스) 도-시군 협의체·정례회의 및 문화재단·문화원 협력체계 강화 2.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 (예술인 지원) 창작지원·임차료·컨설팅 및 CN갤러리 전시 지원 통해 활동여건 개선 ◦ (전문인력 양성) 기획자 교육(연 150명, 110시간) 및 상주단체·청년예술인 공연 지원 3. 명품 문화예술 기반 구축 ◦ (DB 구축) 인력·시설·프로그램 DB 구축 통해 정책 활용 및 문화자원 체계적 관리 ◦ (기부문화 및 교육) 메세나협회·컬프렌드 운영 및 문화교육 실태조사·프로그램 개선 4. 국제적 문화교류 및 대회 개최 ◦ (국제교류 확대) 자매도시 협력 및 K-POP·백제문화 공연 등 맞춤형 문화교류 추진 ◦ (국제행사 개최) 2027 천주교세계청년대회·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K-컬처박람회 등 대형 국제행사 운영 5.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 (체류형 관광 활성화) 세계유산, 백제문화 활용하여 야간 체류 유도 ◦ (관광 인프라 및 홍보) 랜드마크 조성·충남종교문화 활성화 등 관광 수용도 제고
문화를 통한 지역활력	1.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문화의 힘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기금 활용 체류형관광 프로그램, 역사문화, 상설 공연 등을 통한 야간관광 등 활성화 ◦ (균형발전) 도내 문화단지 및 인프라 확충, 문화도시 통한 지역활성화 2. 전통문화 기반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 (권역별 문화발전) 문화산업권·백제문화권 등 5대 권역별 특화 문화정책 추진 ◦ (지역자원 활용) 역사·유산·해양 등 지역자원 기반 문화활력 및 관광 연계 확대 3. 문화 기반 지역발전 도모 ◦ 충남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태조태실, 백제역사지구 등) ◦ 섬비엔날레, 역사문화 자원 기반 상설공연, 폐시설 개편, 지역자원 활용사업 추진 ◦ 문화콘텐츠산업 전문기관 육성, 게임·영상 등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1,718,633명
 - * 국내 총 인구의 3.36%, 인구밀도는 216명/km²로 인구 감소 지역
 - 고령화율 27.4%(초고령사회/전국 4위), 중위연령도 48.9세로 전국(46.4세) 대비 높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39, 전국 4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109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44개 많으나 100km²당 시설 수는 2개로 전국 12위

문화지표	전북특별자치도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190개(전국 8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109개(전국 4위)	65개
100km ² 당 시설수	2.4개(전국 12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 학예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사 수, 문화예술 관람률 및 지출비용은 전국 중·하위권이나,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은 925명으로 전국 1위

구분	문화지표	전북특별자치도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35개(전국 8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38개(전국 14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210명(전국 9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87명(전국 11위)	187명
	전문인력	925명(전국 1위)	237명
	상주일반직원	191명(전국 13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61.6%(전국 8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113,497원(전국 6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문화향유 수준 상승)** 문화예술 관람률 '21년 27.6%에서 '25년 57.3%로 29.7%p 상승, 계획 기간 중 전북의 문화향유 수준 상승폭이 전국을 상회하였음
- **(생활권 문화접근 기회 확대)** 지역 문화시설(대표도서관, 세계서예비엔날레,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과 통합문화이용권,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 문화향유 지원기반을 확충하여 도민이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함
- **(예술인·창작활동 성장)**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20년 2,426명에서 '23년 5,937명으로 약 2.45배 증가로 도 지역 평균 증가배수(1.96배)를 상회 함

한계

- **(자발적 문화참여 낮음)** 관람과 문화공간 이용 등 수동적 문화향유는 증가했으나, 동호회 활동 등 직접 창작 등 주민이 문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자발적 문화활동은 낮은 수준임
- **(문화예산 재량 작음)** 문화예술 비율(24%) 전국 광역 중 유일하게 상승하여 광역 평균(1.75%)을 상회하였지만, 문화예산의 38.9%가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배분되어, 기존 예산의 재구조화가 신규 예산 확보와 병행되어야 함
- **(문화시장 성장 낮음)** 문화산업 사업체 수, 개별 기업의 영세성, 앵커기업이 부재하고, 창작활동이 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중점 추진 과제

전북예술 체감성장	1.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득·복지 안전망 강화 ◦ (소득·복지 안전망) 예술인 창작 기본소득 도입, 예술인 복지·권리 지원 및 사각지대 발굴 ◦ (청년예술인 지원) 청년예술인 일거리·일자리 제공, 예술영재 육성 및 성장경로 지원을 통한 인력 유출 방지 2. 창작지원의 연속화와 창작거점 조성 ◦ (창작지원 연속화) 단년도 창작보조를 연속지원 및 재공연·재전시로 이어지는 지원 추진 ◦ (창작거점 조성)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및 레퍼토리 상설화, 기초예술 종합 지원 및 거점 구축 3. 예술기업 육성과 예술시장 확대 ◦ (예술기업 성장) 예술단체 법인화 및 예술기업 창업·성장 지원, 전문 중개자 생태계 활성화 ◦ (시장·관로 확대) 전북형 문화예술 지역쿼터제 및 전북아트마켓 운영, 대표 축제 브랜드 강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도약	1. 원천 IP 발굴과 콘텐츠 제작기반 구축 ◦ (K-Story IP 발굴) 역사·전통·인물 등 지역문화자원 데이터화 및 스토리센터 운영을 통한 원천 IP 축적 ◦ (융합 제작기반) 실감AI 융합 콘텐츠 제작 인프라 및 AI 기반 영화영상 실증지원 기반 구축 2. 장르별 콘텐츠산업과 기반 성장 지원 ◦ (장르별 산업 육성) 게임·웹툰·대중음악·영화·영상 등 장르별 특화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기업 성장지원) 콘텐츠기업의 창업·제작사업화 성장 원스톱 지원 및 로컬 문화비즈니스 육성 3. 콘텐츠산업 거점과 투자·유통 기반 확충 ◦ (산업거점 조성)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활성화를 통해 기업·인력·지원시설 집적 ◦ (인력·투자·유통) 콘텐츠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온오프라인 유통 지원
15분 문화 생활권 구축	1. 생활권 중심의 문화거점 확충 ◦ (동네 문화공간) 소극장·서점·카페 등 민간 문화공간 거점화 및 네트워크 구축 ◦ (기존 공간 활용) 유휴·기존 문화시설의 주민 친화적 전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성장거점 조성 ◦ (데이터 기반 관리) 시설 접근성·이용률 및 시군별 문화격차 분석을 통한 생활권 문화정책 배분 2. 생애주기 문화복지와 주민주도 생활문화 확대 ◦ (문화복지 강화) 통합문화이용권, 찾아가는 문화향유 사업 및 전북평생문화동행 연계 지원 ◦ (생활문화 활성화) 주민 주도형 생활문화 및 야간 문화생활권 활성화, 직주락 통합지원 ◦ (문화돌봄 다양성) 복지·의료기관 연계 문화돌봄·치유 프로그램 운영, 문화 다양성 제도적 기반 구축
문화자치 기반 고도화	1. 문화자치 제도·재정 기반 확립 ◦ (문화기본권 보장) 시군 지역문화계획 수립 지원 및 중앙·광역·기초 협약을 통한 실행력 강화 ◦ (문화재정 확충) 안정적 문화재정 확보 및 문화후원 등 민간재원 연계 확대 2. 광역-기초 역할 재구조화와 민간 협치 강화 ◦ (역할 재구조화) 도(정책기획·조정·평가)와 시군(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집행) 역할 정립 ◦ (민관협치 강화) 문화재단·자생문화원 등 매개조직 역량 강화 및 행정·민간·주민 협력체계 구축 3. 지역문화 인력 양성과 문화균형 성장 추진 ◦ (전문인력 양성) 문화기획·콘텐츠·데이터 등 신규 정책수요 대응 융합형 인력 양성 및 현장 일 경험 지원 ◦ (문화균형성장) 초광역 문화협력사업 발굴 및 초광역 거점시설 확충(모두예술 콤플렉스, 국립 판소리 산업 복합단지,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경상북도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2,495,919명
 - * 국내 총 인구의 4.89%, 인구밀도는 136명/km²로 인구 감소 지역
 - 고령화율 28.4%(초고령사회/전국 2위), 중위연령도 49.6세로 전국(46.4세) 대비 높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34, 전국 2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90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25개 많으나 100km²당 시설 수는 2개로 전국 최하위

문화지표	경상북도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228개(전국 6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90개(전국 7위)	65개
100km ² 당 시설수	1.23개(전국 17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 활동인력, 문화예술관련 관람률 및 지출비용 등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음(학예 전문인력은 전국 3위)

구분	문화지표	경상북도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12개(전국 13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21개(전국 15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338명(전국 3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92명(전국 10위)	187명
	전문인력	182명(전국 10위)	237명
	상주일반직원	271명(전국 9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44%(전국 17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96,738원(전국 8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문화향유) 찾아가는 도립예술단·아르뜨 운영, 문화의날 54회·통합문화이용권 207억 원 제공 등 생활문화 참여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기반확충) 문화도시(60억원) 추진·생활문화센터 6개소·박물관 3개소 조성으로 공공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
- (산업육성) 콘텐츠기업 지원 16.7억 원과 웹툰캠퍼스·음악창작소 운영으로 창작·창업 생태계 구축 및 인재 양성
- (유산·관광) 신라왕경 복원 1조 원, 세계유산 추진과 관광거점 안동 1,000억 원 등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확대 및 브랜드 강화

한계

- (인력·질적한계) 공모사업 중심 지원으로 기존 예술인 반복 수혜, 전문인력 발굴 부족과 생활문화 질적 향상 노력 미흡
- (운영·사회문제) 문화시설 인력 부족·프로그램 부실 등 운영 내실화 부족, 문화소외·저출생 대응 위한 문화사업 확대 필요
- (정책편중·교류확대 필요) 관광 중심 정책 편중과 도민·예술인 지원 부족, 문화유산 기반 국내외 교류 확대 필요

경상북도 중점 추진 과제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향유	1. 도내 두루두루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접근기회 보장 ◦ (문화서비스) 도립예술단 공연과 국제음악제·창작오페라, 통합문화이용권·청년패스 지원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유희공간) 경북예술센터 운영과 마을박물관 조성 등 공공·마을 유희시설 활용 문화접근성 및 참여 확대 2.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 ◦ (돌봄문화정책) 방문예술교육·종교시설 돌봄공동체·늘봄학교 연계와 가족형 캠핑장 지정, 여행비 지원 등 문화향유 지원 ◦ (문화도시) 안동 문화도시 신규 지정과 1~5차 문화도시 성과 확산으로 주민참여 기반 문화균형발전 추진 ◦ (관광활성화)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 대상 관광단지 규제완화와 민간 투자 유도로 생활인구 확대 및 관광 활성화 3. 장애인 프렌들리 문화기반시설 구축 및 예술활동 지원 ◦ (접근성) 사립미술관 배리어프리인증과 점자·녹음도서, 수어공연·열린 관광지 조성으로 장애인 문화향유 접근성 확대 ◦ (창작지원) 실태조사 기반 지원계획 수립(25년)과 기금 할당제·장애인예술제·교육프로그램으로 창작활동 지원 강화 4.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전략적 확충 ◦ (시설확충) 도립미술관 건립(예천, 1,392억 원, '29년 예정)과 박물관·생활문화센터 확충, 유희공간 재생으로 문화거점 기반 확대 ◦ (운영·디지털)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와 솔거미술관 운영, 세계유산센터·유교경전각 등 디지털 문화시설 구축
경북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	1.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담은 로컬콘텐츠 발굴 ◦ (전통콘텐츠) 한국국학연구원·퇴계귀향길·전통주축전, 임청각 복원 등 전통문화·역사자원 콘텐츠화 및 관광 활용 ◦ (브랜드·세계유산) K-스토리 플랫폼·영상콘텐츠 육성과 한지·장태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으로 글로벌 문화브랜드 강화 2. 문화·관광형 생활인구 유입 확대 ◦ (체류관광) 템플·소울스테이와 유네스코 연계 체험, 야간관광·펫캉스 등 테마상품 개발로 체류형 관광 확대 ◦ (관광기반) 울릉공항 연계 관광단지, 도내 인구감소지역 대상 신규 관광단지 지정, 위케이션 '일습동체', 숙박·기차상품 및 캠핑페스타 운영으로 관광수요 확대 3. 5韓 중심의 경북 한류문화 세계로 확산 ◦ (한류확산) 5韓문화(한복·한식·한지 등) 세계화와 인도 텔리대 한국어학당 운영, 한복패션쇼 개최 및 한지 전통지식과 기술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 (콘텐츠·APEC) K-Con 아지트 구축과 영상콘텐츠 육성, 2025 APEC 연계 K-POP·전시·관광상품으로 한류 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	1. 지역발전을 이끄는 창의적인 문화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 (창작·인력) 지역대표예술제·문학지원과 공예업체 인턴 및 전통공예 가게 승계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으로 창작활동 및 인력 확대 ◦ (교육·콘텐츠) 유아교육·아이돌봄 프로그램과 콘텐츠코리아랩·웹툰캠퍼스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생태계 구축 2. POST APEC과 함께하는 경북 문화관광 융성 ◦ (레거시전략) APEC 계기 도시브랜드·관광 재편 기회와 유희화 방지 위해 공간·콘텐츠·민간 연계 전략 필요 ◦ (정책연계) 문화·생태·역사 융합과 글로벌 경험을 지역정체성과 결합해 지속가능 전략사업 도출

경상남도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3,195,351명
 - * 국내 총 인구의 6.25%, 인구밀도는 306명/km², 인구 감소 지역
 - 고령화율 24.1%(초고령사회/전국 7위), 중위연령도 47.6세로 전국(46.4세) 대비 높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44(소멸위험), 전국 5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72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7개 많으나 100km²당 시설 수는 2개로 전국 13위

문화지표	경상남도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233개(전국 5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72개(전국 9위)	65개
100km ² 당 시설수	2.2개(전국 13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 예술단체·법인 수, 활동인력 등 전반적으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관람률 및 지출 비용은 하위권에 속함

구분	문화지표	경상남도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54개(전국 4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228개(전국 1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253명(전국 6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150명(전국 5위)	187명
	전문인력	111명(전국 12위)	237명
	일반상주직원	430명(전국 5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59%(전국 10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53,893원(전국 16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재정기반)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대와 재원 다각화, 시군 사업·특화프로젝트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지속 강화
- (산업육성)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콘텐츠산업본부 중심 기업지원·IP상품화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거버넌스) 문화전담기관과 시군 재단 협업, 민관 참여 확대 통해 정책 추진 효율성과 문화자치 기반 공고화

한계

- (행정비효율) 보조사업 과다 세분화로 집행·평가 비효율과 실적관리·모니터링 복잡으로 통합관리 한계 지속
- (격차문제) 재정여건·자치력 차이로 지역 간 문화격차 지속, 주민 참여도·체감도 편차로 균형발전 한계 존재
- (정책한계) 성과지표 부족과 단기성과 중심 운영으로 정책 지속성 미흡, 지역 고유 브랜드 및 생활문화 편차 심화

경상남도 중점 추진 과제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1. 일상 가까이에서 누리는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격차 완화 ◦ (문화향유) 문화누리카드·청년 문화예술패스와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 (문화격차) 도민예술단 순회공연과 장애인·문화소외지역 맞춤형 지원 2. 예술인 창작·성장 기반 강화와 문화예술 거점기능 고도화 ◦ (창작지원) 지역문화예술·맞춤형 지원 확대와 메세나·해외진출 지원 ◦ (거점강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거점기능 강화와 합천청사 「경남예술 캠퍼스」 조성을 통해 창작·교육·교류 기반 확충 3. 경남 대표 문화브랜드 육성 및 도시문화 경쟁력 강화 ◦ (문화브랜드) 독립합창단 창단과 경남국제합창제·통영국제음악제·거창 국제연극제 육성을 통해 경남 대표 문화브랜드 구축 ◦ (문화도시) 진주·통영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과 지역 고유 문화자원의 콘텐츠화를 통해 지역 문화경쟁력 강화 4. 지역 문화거점 및 생활권 문화인프라 확충 ◦ (거점시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등을 통해 권역별 핵심 문화거점 확충 ◦ (생활인프라) 문예회관·미술관·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센터 등 생활권 문화시설을 확충해 지역 간 문화접근성 제고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으로 경남의 미래성장동 력 육성	1. 기업·인재가 집적되는 콘텐츠산업 혁신거점 조성 ◦ (산업거점) 콘텐츠산업타운 조성을 통해 앵커·강소기업과 청년 창작자가 집적되는 콘텐츠산업 성장거점 구축 ◦ (기업성장) 창작·사업화부터 마케팅·글로벌 진출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콘텐츠기업 경쟁력 강화 2. 전문 컨트롤타워 구축과 투자 생태계 활성화 ◦ (전담기관) 경남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분산된 콘텐츠산업 지원기능을 일원화하고 전문 컨트롤타워 구축 ◦ (투자확대) 콘텐츠산업 전용 투자펀드 조성 and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투자·성장 기반 강화 3.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미래 콘텐츠 인재 육성 ◦ (AI인재) AI 크리에이터와 디지털 기반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해 미래 콘텐츠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창작역량 강화 ◦ (청년인재) 글로벌 청소년 콘텐츠 경진대회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콘텐츠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지역 정착 유도 4. 핵심장르 집중 육성과 지역 IP의 산업화·글로벌화 ◦ (핵심장르) 게임·웹툰·영상·음악·e스포츠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콘텐츠 장르를 전략적으로 육성 ◦ (IP확장) 지역 원천 IP 발굴과 2차 창작·사업화, 국내외 유통·투자 연계를 통해 콘텐츠의 시장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유산 가치 확산과 경남 문화유산 정체성 확립	1. 고도 지정과 광역 역사문화권 연계기반 구축 ◦ (고도육성) 함안·김해 고도 지정·정비를 통해 가야역사문화권의 체계적 보존과 주민이 체감하는 역사문화환경 조성 ◦ (광역연계) 오색가야뜰 조성 and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해 가야 문화권의 지역상생 및 관광·문화거점 기능 강화 2.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가치 확산과 활용 고도화 ◦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과 추가등재 연구·광역 통합관리를 통해 세계유산의 브랜드 가치와 활용 기반 강화 ◦ (향유확대) 미디어아트·야간관람·체험 등 특화 콘텐츠를 확대해 도민이 일상에서 국가유산을 누리는 기회 확대 3. 무형유산 전승과 K-아리랑 국제 브랜드화 ◦ (전승기반) 무형유산 전승자 지원과 공연·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전통문화의 지속가능한 전승 생태계 구축 ◦ (K-아리랑) 「2030 K-아리랑 엑스포 in 밀양」 추진을 통해 밀양아리랑을 비롯한 경남 무형유산의 국제 브랜드화 추진 4. 미래유산 발굴과 기후위기 대응 보호체계 강화 ◦ (미래전승) 경남 미래유산 발굴 and 도 지정유산 정기조사·국외소재 문화유산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전승 기반 마련 ◦ (안전관리) 기후위기와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점검·보수와 과학적 관리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배경

- 2026년 6월 기준, 인구 662,792명
 - * 국내 총 인구의 1.3%, 인구밀도는 365명/km²
 - 고령화율 20.6%(초고령사회/전국 11위), 중위연령도 45.6세로 전국(46.4세) 대비 높은 수준
-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58(소멸주의), 전국 10위

문화 여건

-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은 인구 100만명당 189개소로 전국 평균인 65개보다 124개 많으나 100km²당 시설 수는 7개로 전국 7위

문화지표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평균
문화기반시설*수	127개(전국 11위)	196개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	189개(전국 1위)	65개
100km ² 당 시설수	6.9개(전국 7위)	3.32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학관

- **(문화활동)** 문화예술법인·단체 수, 문화예술 활동인력, 문화예술 관련 지출비용은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하나, 문화예술관람률은 전국 7위로 중위권

구분	문화지표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평균
활동 조직	지역 문화전문 예술법인 수	11개(전국 14위)	37개
	지역 문화전문 예술단체 수	17개(전국 17위)	77개
활동 인력	학예 전문인력	158명(전국 10위)	592명
	문화예술교육사 수	23명(전국 16위)	187명
	전문인력	288명(전국 4위)	237명
	일반상주직원	78명(전국 16위)	442명
활동 결과	문화예술관람률	63%(전국 7위)	60.2%
	문화예술관련 지출비용	63,943원(전국 14위)	100,548원

제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성과와 한계

주요 성과

- (예술인 복지 지원) 제주 예술인 복지기금 연차별 조성 및 예술인(단체) 창작 활동 활성화 지원 확대,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으로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
- (지역 브랜드 가치 육성) 마을별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제주형 K-콘텐츠 산업화, 제주어·제주역사 등 제주고유 문화자산의 체계적 보전과 콘텐츠 육성
- (문화자치) 문화자치 원탁회의 등 문화정책 기획-집행 과정에 도민 참여 확대

한계

- (문화격차) 지역·소득 등 격차에 따른 문화향유 불평등 완화 정책 확대 필요
- (정책한계)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 재원 확대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중점 추진 과제

문화정책 협력 기반 구축	1. 문화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 문화협력위원회 기능 강화 등 민관협력체계 강화 - 도·행정시·공공기관·예술인(단체) 참여 협의체계 구축 및 문화협력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한 문화정책 컨트롤타워 정착 2. 문화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 문화예술예산 최소 기준 확보를 통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2.0% 이상) - 기업 ESG 경영 연계, '제주형 메세나' 생태계 고도화
창작·유통· 향유가 선순환하는 예술생태계 구축	1. (창작)예술인 '창작의 가치' 보장을 통한 안정적 창작 환경 강화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고도화를 통한 권역별 예술인복지지원 거점 기능 강화 -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 및 장애예술인 창작·생활문화 활동 지원 강화 -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데이터 확보 및 수요 반영 정책 발굴 2. (유통) 창작에서 유통까지 체계적 지원 - 미술은행 도입을 통한 지역 작가 수집·보존 및 대여 - 창작·제작·유통·시장 연계형 예술창업 지원 및 국제문화교류 확대 3. (향유) 생활권 중심의 주민 밀착형 문화예술 참여·향유 기반 확대 '172리 문화권 조성'으로 마을 기반 일상 속 문화 참여·향유 기회 확대 - 문화예술기반 고도화 및 원도심 문화예술 벨트 구축 - 생활밀착형 공간 활용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AI대전환 (AX)을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고도화	1. AI 기반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체계 고도화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개관 연계 원천스토리 공모에서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 - 기업-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제주콘텐츠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 AI기반 콘텐츠 R&D 실증사업 발굴 2. 제주 문화콘텐츠 IP(지식재산권) 성장기반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구축·운영, 제주 실내영상스튜디오 내 인프라 보강 - 제주로케이션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제주 글로벌 게임센터 구축 및 CGI 애니메이션센터 기능 강화
제주 문화 고유성 지속 및 확산	1. 인류 문화 자산으로 제주 고유 문화 보존·활용 - 제주 고유 문화자산 연계 지속가능 콘텐츠화 및 문화상품 개발 - 근현대 문화유산, 문화경관 자원 등 고유문화 자원의 디지털 자산화 추진 2. 제주어 및 제주역사의 지속가능한 전승기반 구축 - 제주어대사전 및 웹사전 구축으로 제주어의 미래세대 전승 기반 구축 - 제주역사의 체계적 정립과 도민 체감형 역사문화 확산 추진

VII. 과제별 추진체계 및 일정

사 업 명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	협력	
1.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1-1. 다년도 협약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기본권 보장계획 수립	문체부	지자체	'28년~
문화기본권 보장계획 이행 협약 체결	문체부	지자체	'28년~
1-2. 사람에게 투자하는 지역문화정책으로 자생력 강화			
지역문화전문인력 관련 연구 및 법률 개정	문체부	-	'27년~
전문인력 양성 과정 신설	문체부	지자체	'28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일 경험 확대 및 성장경로 지원	문체부	지자체	'28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원 기반 강화	문체부	지자체	'28년~
1-3. 지역 예술의 창작·유통 기반 강화			
지역 예술인(예비·신진·예술영재) 지원 및 유입 확대	문체부	지자체	'27년~
지역 예술 창·제작 여건 강화	문체부	지자체	'27년~
지역 문화예술 유통 활성화	문체부	지자체	'28년~
1-4. 지역 문화 인프라 혁신			
유희공간·산업단지 활용형 문화거점 조성	문체부	지자체 산업부 국토부	'26년~
노후 공공문화시설 장비 개선	문체부	지자체	'28년~
문화기반시설 관계 법령 정비	문체부	-	'27년~
1-5.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 향유 고도화			
전국 어디에서나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	문체부	지자체	'26년~
격차 없는 문화복지와 미래세대 문화예술교육	문체부	지자체	'27년~
생활양식 변화 대응 신규 문화모델 발굴	문체부	지자체 관계부처	'27년~
2. 협력형 거버넌스 및 문화자치 기반 확립			
2-1.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 강화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역할 재정립	문체부	지자체	'27년~
중앙-지역 협력·연계 네트워크 복원 및 강화	문체부	지자체	'27년~
지역문화진흥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컨설팅 강화	문체부	지자체	'28년~
중앙-지역 협력적 거버넌스의 법적 근거 마련	문체부	-	'27년~

사 업 명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	협력	
2-2. 지역문화기관 기능·역량 강화			
지역문화진흥원의 재구조화	문체부	-	'27년~
지역 문화기관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혁신	문체부	지자체	'27년~
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	문체부	관계부처	'27년~
2-3. 지역문화재정 안정화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문체부	관계부처	'28년~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문체부	관계부처	'28년~
지방이양사업 등 기존 재정 운용 내실화	문체부	행안부	'28년~
2-4. 데이터 기반 지역문화정책 고도화			
지역문화 데이터 표준화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문체부	관계기관	'27년~
지역문화 실태조사 개편	문체부	-	'26년
데이터 기반 문화행정·서비스 고도화	문체부	-	'27년~
3. 생활권에서 초광역까지 연결하는 문화균형성장체계로 전환			
3-1. 생활권-5극 3특 연계, 초광역 문화균형성장 체계로 전환			
생활권 연계 5극 3특 문화균형성장 계획 수립	문체부	지자체	'28년~
초광역 협약체결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	문체부	지자체	'28년~
3-2. 초광역 단위의 거점 문화시설 확충			
국립 문화시설의 초광역 단위 지역 이전·신설	문체부	-	'27년~
초광역권별 공립 문화시설을 국립 수준으로 향상	문체부	지자체	'28년~
K-컬처 확산을 위한 권역별 대중문화 인프라 고도화	문체부	지자체	'26년~
3-3. 지역문화 성장거점 조성 및 연계체계 강화			
생활권 특성에 맞는 문화성장거점 육성	문체부	지자체 관계부처	'27년~
문화도시 성과 지속 확장 및 거점 문화권 연계	문체부	지자체	'27년~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문체부	지자체 관계부처	'28년~
4. 문화로 풍요로운 지역의 미래 창조			
4-1. 창조적 공동체 돌봄과 문화다양성 기반 생활문화정책 확장			
문화를 통한 개인과 사회의 돌봄·치유 확대	문체부	지자체	'28년~
문화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확대	문체부	지자체	'28년~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문체부	지자체	'26년~
지자체 협력 통한 생활권 문화공간 확보 및 활동여건 제고	문체부	지자체	'28년~

사 업 명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	협력	
4-2. 고유한 지역문화자산의 보존·활용과 지역 주도 콘텐츠 육성			
지역의 고유한 기억 및 서사의 보존·활용	문체부	지자체 관계부처	'27년~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의 콘텐츠화 및 브랜딩 지원	문체부	지자체	'28년~
로컬에서 글로컬로, 지역문화 무대의 확장	문체부	지자체	'28년~
4-3. AI 기반 문화서비스 혁신			
문화시설 지능형 플랫폼 기능 강화	문체부	-	'27년~
국가지식문화 AI 허브 구축	문체부	-	'27년~
지역문화 원천콘텐츠 발굴 및 디지털화	문체부	지자체	'27년~
지역문화 AI 데이터·윤리 기반 구축	문체부	지자체	'27년~
4-4. 지속가능한 로컬 문화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로컬 문화비즈니스 창업·성장 지원	문체부	지자체	'27년~
문화비즈니스 통한 지역사회 가치 환원	문체부	지자체	'27년~